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 의견조사 연구

FGI·IDI 기초분석 보고서

음악

2025.05



담당부서 : 기획조정팀
Tel : 061)900-2147
연구 기획 · 진행 : 음악 연구협의체(노승림, 윤무진)
작성 : ㈜케이스탯리서치

Contents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2. 조사 목적 1
3. 조사 설계 및 내용 1

제2장. 조사 결과

[그룹 1] 교육 7
[그룹 2] 창작 12
[그룹 3] 유통 16
[그룹 4] 향유 20
[그룹 5] 공공/민간 지원 24
[그룹 6] 진입 28
[그룹 7] 공공예술단체 36
[그룹 8] 공연장 44
[그룹 9] 프리랜서 연주가 52
[그룹 10] 민간단체 59
[그룹 11] 지역 68
[그룹 12] 음반 76
[그룹 13] 축제 83

Contents

표 목차

[표 1-1]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1
[표 2-2] 그룹 구성 - [그룹 1] 교육 7
[표 2-3] 참석자 명단 - [그룹 1] 교육 7
[표 2-4] 그룹 구성 - [그룹 2] 창작 12
[표 2-5] 참석자 명단 - [그룹 2] 창작 12
[표 2-6] 그룹 구성 - [그룹 3] 유통 16
[표 2-7] 참석자 명단 - [그룹 3] 유통 16
[표 2-8] 그룹 구성 - [그룹 4] 향유 20
[표 2-9] 참석자 명단 - [그룹 4] 향유 20
[표 2-10] 그룹 구성 - [그룹 5] 공공/민간 지원 24
[표 2-11] 참석자 명단 - [그룹 5] 공공/민간 지원 24
[표 2-12] 그룹 구성 - [그룹 6] 진입 28
[표 2-13] 참석자 명단 - [그룹 6] 진입 28
[표 2-14] 그룹 구성 - [그룹 7] 공공예술단체 36
[표 2-15] 참석자 명단 - [그룹 7] 공공예술단체 37
[표 2-16] 그룹 구성 - [그룹 8] 공연장 44
[표 2-17] 참석자 명단 - [그룹 8] 공연장 45
[표 2-18] 그룹 구성 - [그룹 9] 프리랜서 연주가 52
[표 2-19] 참석자 명단 - [그룹 9] 프리랜서 연주가 52
[표 2-20] 그룹 구성 - [그룹 10] 민간단체 59
[표 2-21] 참석자 명단 - [그룹 10] 민간단체 60
[표 2-22] 그룹 구성 - [그룹 11] 지역 68
[표 2-23] 참석자 명단 - [그룹 11] 지역 69
[표 2-24] 그룹 구성 - [그룹 12] 음반 76
[표 2-25] 참석자 명단 - [그룹 12] 음반 76
[표 2-26] 그룹 구성 - [그룹 13] 축제 83
[표 2-27] 참석자 명단 - [그룹 13] 축제 83

01

조사 개요



Ⅰ.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수행기관 : ㈜케이스탯리서치
■ 조사기간 : 2024년 8월 21일(수) ~ 2025년 1월 11일(토)
■ 조사방법 : FGI 및 심층면접

2. 조사 목적

■ 정부의 예술위원회 역할 재설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주요 장르별·기능별 지원사업들이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잘 작동했던 것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과 변화 상황에서 예술위원회의 역할 모색의 근거 수집 필요
■ 이에 음악 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현장 전문가와 연구협의체(음악 분야, 관련 지원정책·연구 전문가)로 참여 인원을 구성하여 FGI 및 IDI를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조사 설계 및 내용

■ FGI는 총 13개 그룹으로 진행함

[표 1-1]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그룹]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1] 교육	ㅇ 영재교육 지원 확대, 음악계 위계 질서, 실기시험 서열화, 현대음악 양식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01, CA002, CA003, CA043, CA058
[그룹2] 창작	ㅇ 현대음악 연주자 부족,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 공연 감소, 음악대학 구조 한계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03, CA006, CA040, CA041
[그룹3] 유통	ㅇ 시장 확장, 공연의 낮은 수익성, 연주자 부족, 홍보 예산 부족, 언론 의존 홍보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04, CA005, CA006

[그룹]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4] 향유	ㅇ 입문 경로의 다양성과 팬덤 기반 향유 방식공연 선택 기준 및 향유 경험의 고도화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05, CA007, CA008, CA009, CA010, CA011, CA012
[그룹5] 공공/ 민간 지원	ㅇ 민간 클래식 지원 재단의 장기적 운영, 기업 CEO 대상 메세나 교육을 통한 후원자 육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13
[그룹6] 진입	ㅇ 가정환경과 조기 경험의 중요성 , 제도화된 입시 구조 속 조기 진입 경로의 고착화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02, CA014, CA015, CA016, CA017, CA017_1, CA017_2, CA018
[그룹7] 공공예술단체	ㅇ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예술단체 운영 구조, 예술성과 공공성을 병행하는 공연 기획 체계, 지방예술단의 역사성과 지역 문화 자산화 과정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14, CA019, CA020, CA021, CA022, CA023, CA024, CA025, CA026, CA027, CA028, CA029, CA030
[그룹8] 공연장	ㅇ 기획 공연과 대관 운영의 현실적 균형, 공연장 팀 구성과 기능 분화, 공연장 세트업과 기술 인프라의 강점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31, CA032, CA033, CA034, CA035, CA036, CA037, CA038, CA039, CA040, CA041
[그룹9] 프리랜서 연주가	ㅇ 다중 직업자로서의 프리랜서 연주가, 대안 공간 중심의 활동 환경 조성, 자기 기획 중심의 활동 구조 정착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15, CA016, CA042, CA043, CA044
[그룹10] 민간단체	ㅇ 기획·운영 전반을 연주자가 직접 수행하는 구조, 프로젝트 단위 예산 운용 및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06, CA031, CA045, CA046, CA047, CA048, CA049, CA050, CA051, CA052, CA053, CA054, CA055, CA056, CA057

[그룹]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11] 지역	ㅇ 지역별 예술 기반 불균형 및 수요 편차, 정체성 확보를 위한 축제 및 음악제의 지역화 전략, 지역 관객의 성향에 기반한 프로그램 구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25, CA026, CA027, CA029, CA035, CA036, CA037, CA038, CA039, CA058, CA059, CA060, CA061
[그룹12] 음반	ㅇ 클래식 피지컬 시장의 견고한 잔존, 글로벌 음반사의 전략 변화와 국내시장 영향, 클래식 및 크로스오버의 시장 비중과 수익 구조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62
[그룹13] 축제	ㅇ 현대음악제에서 동시대 예술제의 정체성으로 확장됨, 축제 테마 중심 프로그래밍 지향, 공연장 보유에 따른 기획력 및 운영 자율성 확대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CA-A ㅇ 참석자 : CA056, CA058, CA060, CA061

02

조사결과



[그룹 1] 교육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 1]은 5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2] 그룹 구성 - [그룹 1] 교육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1] 교육	연번_2	2024-08-20	CA003
	연번_9	2024-09-05	CA001
	연번_41	2024-12-10	CA043
	연번_42	2024-12-17	CA058
	연번_54	2025-01-22	CA002

2. 참석자 명단

■ [그룹 1]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5인으로 구성됨

[표 2-3] 참석자 명단 - [그룹 1] 교육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1] 교육	연구협의체(n=1)	-	CA-A	여	-	-
	참석자(n=5)	교육	CA001	남	30년	60대
		교육	CA002	남	-	-
		교육	CA003	남	50년	80대
		교육	CA0043	남	-	30대
		교육	CA0058	여	21년	40대

3. 주요 논의 사항

■ 음악 분야 현황
- 영재교육 지원 확대
- 음악계 위계 질서
- 실기시험 서열화 관련

■ 음악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현대 음악 양식 강요 관련
- 실기시험 심사 기준 관련
- 영재교육원 연간 선발 관련
- 예술교육과 인문학적 소양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영재교육 시스템은 안정화되었지만, 음악계 위계질서 및 실기시험 서열화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1) 영재교육 지원 확대

■ 영재교육범이 생기며 영재교육원이 국가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됨

■ 개선한 부분이 있으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임

"처음엔 예비학교였는데, 영재교육법이 생기면서 영재교육원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예비학교가 국고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영재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CA002)

2) 음악계 위계 질서

■ 한국 음악계는 특정 그룹이나 학파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가 존재함

■ 수직적인 위계질서로 창작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창작 활동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단체, 협회 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한 군데는 있는데 제가 OO대학교 나왔는데 OO대학교에 이제 OO학회라는 거 그거는 좋든 나쁘든 OO대 출신으로 들어가는 거 이외에는 그밖에 우리 사회에 뭐가 많잖아요. 근데 기웃거려보고 했는데 내 체질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너무 수직적이고 종속적이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음악하고도 좀 너무 많이 다르고 그래서 편가르기 이런 거 싫고, 다 똑같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다 똑같고 이쪽 그룹이나 저쪽 그룹이나 같은데 그룹을 나눈 거는 선생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CA003)

3) 실기시험 서열화 관련

■ 음악 실기시험의 서열화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양면성이 있음

"실기시험이 끝나면 바로 서열이 정해지고, 내가 몇 등인지 정확히 알게 되죠.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부담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동기부여가 됐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서열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누가 1등 했고, 이번에 몇 등 했고, 이런 게 다 공유되니까 부담이 크죠. 그런데 또 그런 게 없으면 경쟁이 안 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CA043)

나. 생태계 이슈

현대 음악 강요는 창작을 제한하며,
예술 교육은 인문학과 타 예술 경험도 필요

1) 현대 음악 양식 강요 관련

■ 한국 음악계에서 현대 음악의 특정 양식을 강요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서구식 스타일이 한국 정서와 맞지 않을 수도 있음

"음악까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아주 심한 경우는 어느 학교에서는 현대 음악 할 때 멜로디를 쓰면 성적 f 준다 이런 말을 그렇게 그런 건 굉장히 싫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독일 갔다 와서 70년대 갔을 때 도나우에싱겐 제일 현대 음악제 할 때인데 나는 제일 싫더라고요. 이해는 되고 되는데 그건 독일 쪽이지 우리 한국 정서에 안 맞더라고요." (CA003)

2) 실기시험 심사 기준 관련

■ 음악 실기시험은 심사위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다수의 점수를 종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음악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심사위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연주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지만, 어떤 분들은 테크닉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실기시험에서는 여러 명의 심사위원 점수를 종합해서 평가하니까 어느 정도 공정해지기는 하죠." (CA043)

3) 영재교육원 연간 선발 관련

■ 영재교육원의 연간 선발 시험은 지속적인 경쟁이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연간 선발 폐지 시 새로운 진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

"매년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 장단점도 있습니다. 매년 1년마다 시험을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 그런 게 이제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고 아직 진입하지 못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 (CA002)

4) 예술교육과 인문학적 소양

■ 예술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타 예술 경험과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변화하는 예술가의 역할을 반영해야 함

"예술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장르 외 예술에 대해서 벽을 치고 살아요. 타 예술에 대한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인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어떤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것 시사적인 것을 인지시켜준다라는 거는 그것은 그거야말로 또 주입식 교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문 예술인으로 가는 그거를 목표로 하지만 전문 예술인을 보더라도 우리가 OOO을 보더라도 책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전하고는 지금 상황이 요구되는 예술가 상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CA001)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공공지원의 다양성 존중, 장학지원 확대, 예술교육 강화 등이 필요

1) 공공지원의 다양성 존중 관련

■ 작곡 분야는 개인의 창작 활동이 중요하므로, 공공지원 시 특정 그룹이 아닌 다양한 음악적 성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작곡은 그냥 역시 혼자 나무 자르듯이 풀 자르듯이 해야지 뭐 이렇게 끼리끼리 하고 그런 거가 좀 [...] 그래서 공공지원이 들어가더라도 특정 그룹이나 성향 중심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CA003)

2) 음악 교육 장학 지원 확대 관련

■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음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지원 시스템 확대 필요

"예원, 예고 등록금이 일반 학교보다 비싸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어요. 집이 사실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음악 공부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악기도 그렇고, 레슨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았죠. 대학교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등록금도 비싸고, 유학 준비도 해야 했고 [...]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장학금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지원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CA043)

3) 예술 교양 교육 강화 필요

■ 예술 교양 교육 강화를 위해 독립성을 높이고, 학칙 개정을 통해 전문 교수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예술 교양학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조금 더 독립시키고 거기를 더 강화하고 심지어 학칙을 바꿔서라도 담당할 수 있는 교수를 하나 새로 뽑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학칙이 교수는 무조건 6개월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풀어놓으면 다른 데서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CA001)

[그룹 2] 창작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 2]는 4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4] 그룹 구성 - [그룹 2] 창작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2] 창작	연번_2	2024-08-20	CA003
	연번_39	2024-12-03	CA006
	연번_40	2024-12-04	CA040
	연번_40	2024-12-04	CA041

2. 참석자 명단

■ [그룹 2]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4인으로 구성됨

[표 2-5] 참석자 명단 - [그룹 2] 창작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2] 창작	연구협의체(n=1)	-	CA-A	여	-	-
	참석자(n=4)	창작	CA003	남	80대	50년
		창작	CA006	여	30대	12년
		창작	CA040	여	50대	25년
		창작	CA041	여	30대	14년

3. 주요 논의 사항

■ 음악 분야 현황
- 현대 음악 연주자의 부재
- 작곡가가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현대 음악 공연의 감소

■ 음악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종합대학 음악대학의 구조적 한계
- 연구 실적을 위한 연주 활동
- 한국 음악의 정체성 부족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 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현대 음악 연주자, 작곡가 양성 부족과 공연 감소로 인한 생태계 위기

1) 현대음악 연주자의 부재

■ 국내 음악 대학에서는 현대음악을 정규 과정으로 배울 기회가 적어서 현대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거의 없음

- 오디션을 진행해도 현대음악 연주자가 부족한 상황

"현대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국내 음대에서는 현대음악을 정규적으로 배울 기회가 부족해요. 음대 학생이 작곡 전공 친구랑 친해서 우연히 현대음악을 접하지 않는 이상, 실제 연주 기회가 없죠. [...] 정규 커리큘럼에서 현대음악 교육이 거의 없다 보니, 팀프에서 오디션을 할 때도 현대음악을 경험한 연주자가 너무 부족해요." (CA006)

2) 작곡가가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으로는 작곡가가 창의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우리나라 음악 대학에서는 작곡가가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경향이 강한데, 그런 환경에서는 개성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OO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작곡은 기계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현대음악할 때 멜로디를 쓰면 성적을 F 준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너무 서양의 현대음악 트렌드만 따라가려다 보니 우리만의 개성이 사라지는 거죠." (CA003)

3) 현대음악 공연의 감소

■ 현대음악 프로젝트가 없어지면서, 현대음악 공연의 수가 많이 감소하였음

"서울시향 아르스 노바 같은 현대음악 프로젝트가 없어지면서, 현대음악 공연 기회가 줄고 있어요. [...] 공공기관이 현대음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공연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연 CA040)

나. 생태계 이슈

실기 교육 제한. 실적 중심 공연, 한국 음악 정체성 부족

1) 종합대학 음악대학의 구조적 한계

■ 종합대학 음악대학은 일반대학과 동일한 교육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교양과목에 대한 부담이 큼

■ 실기 중심 학습이 어려워 전문 연주자 양성에 한계가 있음

"OO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느낀 건데, 음악을 하는 학생들에게 교양 과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기를 더 깊게 연습할 시간이 부족해요. OOOO학교 같은 곳은 실기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서 음악 전공자로 성장하기 훨씬 유리하죠. [...] 그런데 종합대학 안에 있는 음악대학들은 일반 대학과 같은 시스템을 따르다 보니 실기 외에 부담이 많아요." (CA003)

2) 연구 실적을 위한 연주 활동

■ 연말 교수들의 연구 실적 제출로 공연이 몰리면서 대관 수요가 급증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균형있는 공연 운영이 어려워짐

■ 연구 실적을 위한 공연이 많아지면서, 공연의 질 보다는 실적이 우선시되는 문제 발생

"연말이 되면 교수들의 실적 제출을 위한 공연이 몰리면서 대관 문의가 폭주합니다. 대관 일정이 특정 시기에 쏠리다 보니, 연중 균형 있게 공연이 진행되기 어렵고,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CA041)

"교수님들이 실적 제출을 위해 공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연의 예술성이 아니라 실적을 맞추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연 기획이 아니라 '몇 회 공연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CA040)

3) 한국 음악의 정체성 부족

■ 한국 음악계가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한국 음악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지만, 서양 음악을 따라가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립합창단이나 국립오케스트라가 해외 공연을 갈 때, 한국 음악을 연주할 줄 알았는데, 베토벤, 브람스만 연주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 국립기관이 한국 음악을 연주하지 않느냐'고 물었던 거죠. 결국 한국적인 색채가 들어간 음악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서양음악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외에서도 한국적인 색채가 담긴 작품을 원하고 있어요. [...]" (CA003)

다. 개선방안 및 공공지원

음악 전공자 양성, 현대 음악 교육을 위해 공공지원 확대가 필요함

1) 콘서바토리형 교육 기관 활성화 필요

■ 국내 음악 전공자 양성을 위해서는 종합대학보다 실기 중심의 콘서바토리형 교육 기관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음악 전공자를 양성하려면 유럽식 콘서바토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예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사실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주자들의 대부분이 한예종 출신이에요. 그만큼 체계적인 실기 중심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국의 종합대학 시스템에서는 전공 실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한예종과 같은 전문 기관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003)

2) 연주자 양성 프로그램 확대 필요

■ 국내 음악대학에서는 현대음악 교육이 부족하여, 연주자 커리큘럼 개편과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음대 학생들이 현대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저도 음대를 나왔지만,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현대음악을 거의 배우지 않았거든요. 음대에서 작곡가 학생들과 협업하면서 배우는 정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현대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개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팀프에서도 아르코 중장기 사업을 통해 현대음악 연주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해요." (CA006)

3) 공공지원 확대 필요

■ 현대음악 공연 감소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획 지원 및 전문 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필요

"현대음악 관련 공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공공기관이 현대음악 공연 기획을 지원하거나, 현대음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CA040)

[그룹 3] 유통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 3]은 3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6] 그룹 구성 - [그룹 3] 유통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3] 유통	연번_3	2024-08-22	CA004
	연번_23	2024-11-15	CA005
	연번_39	2024-12-03	CA006

2. 참석자 명단

■ [그룹 3]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3인으로 구성됨

[표 2-7] 참석자 명단 - [그룹 3] 유통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3] 유통	연구협의체(n=1)	-	CA-A	여	-	-
	참석자(n=3)	유통	CA004	여	40대	25년
		유통	CA005	여	50대	17년
		유통	CA006	여	30대	12년

3. 주요 논의 사항

■ 음악 분야 현황 및 생태계 이슈
- 팬덤, 마케팅을 통한 클래식 시장 확장
- 클래식 공연의 낮은 수익성
- 실전 경험이 풍부한 현대음악 연주자 부족
- 언론에 의존하는 홍보
- 홍보 예산 부족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및 생태계 이슈

팬덤형성을 통해 시장을 확장했으나,
수익성, 연주자 부족, 효과성 낮은 홍보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음

1) 팬덤, 마케팅을 통한 클래식 시장 확장

■ 국내 클래식 시장에서 팬덤 형성과 기존에 없던 컨셉의 연주자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클래식 시장을 확장하고 있음
- 특정 페스티벌의 앙상블팀의 팬덤 형성

■ 팬덤을 형성한 연주자들 외에 국내 다른 연주자들의 공연도 늘어나게 됨

"OO가 몇 년이었지? 2007년, 6년 그 정도부터 한국 클래식 시장에서 OO페스티벌이라는 OO 앙상블이 예를 들면 팬덤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한국 출신의 다 한국에 있지는 않았지만 해외에 거주할 수도 있지만 좀 젊은 연주자들을 어떻게 조금 마케팅 아닌 마케팅적인, 좀 그런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 기존에 없던 한국 클래식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확장시키면서 또 그들의 공연이 늘어나고, 그러면 저희 공연 리스트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한국 출신 연주자들의 공연이 더 늘어나는 [...]" (CA004)

2) 클래식 공연의 낮은 수익성

■ 클래식 공연의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인 콘텐츠가 필요하지만, 흥행 가능한 공연이 한정적이어서 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니까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인 건데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 기획사라면 누구든 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티켓을 팔아서 이게 수익이 나서 운영이 되고 뭔가 좀 남는 구조까지 가려면 되게 안정적인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어떤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 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건 다 너무 한정적이고." (CA004)

3) 실전 경험이 풍부한 현대음악 연주자 부족

■ 현대음악 연주자는 클래식 전공자와도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 실전에 바로 투입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재를 찾기 어려움

■ 현대음악 연주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부족한 상황

"처음에 저희가 오디션을 도입할 때 과연 지원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현대음악을 연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클래식 전공자들도 현대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오디션을 봐서 적절한 단원을 뽑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 현대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대학교 때부터 훈련된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전공자라도 악보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기본적인 연주 실력과 별개로, 현대음악을 얼마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 지원자를 보면 클래식 전공을 했더라도 현대음악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오디션을 통해 바로 팀에 적응할 수 있는 연주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오디션 과정에서 현대음악 특유의 해석 방식이나 연주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국내에서는 현대음악을 전공으로 삼거나 지속적으로 연주해 온 연주자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현대음악 연주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CA006)

4) 홍보 관련

1) 언론에 의존하는 홍보

■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언론 홍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홍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언론 홍보를 심적으로 많이 의지함

- 티켓 판매가 저조할 경우, 이를 언론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대중 음악은 언론 의존도가 낮아요 클래식은 아직도 언론 의존도가 높은데, 그 언론 의존도가 높다는 거에 어떤 담겨진 뜻은 뭐냐 하면, 클래식을 실제로 퍼블리시티를 통해서 널리 확산시켰을 때의 실효성보다는, 저희에게 일을 주시는 클라이언트들이 심적으로 의존하는 그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많이 높아요 그래서 아직도 세일즈가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저조하다든지 기대 이하라고 하면은 하면 언론 홍보를 우리가 좀 못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아는 클래식 시장의 고객들은 꼭 메이저 언론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본인들이 원하는 적합한 경로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이미 [...]" (CA005)

2) 예산 부족

■ 클래식 공연 홍보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

■ 대부분의 기획사는 프오덕션 비용의 10%조차도 홍보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해 효과적인 홍보 전략 실행이 어려운 상황임

"공통점은 예산이 적으니 그 예산에 맞춘 효율적인 집행을 해달라였어요. 아주 명확해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왜 두 가지 어프로치가 가능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에다가 그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확보된 재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든지 그런데 사실 프라이빗 섹터는 후자가 더 많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현명한 답을 들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상적인 형태로는 항상 제가 주장하거나 가이드를 드리는 건 전체 프로덕션 비용의 10%는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10%를 못 쓰세요 저는 미니멈 10%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10%를 쓰시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CA005)

나. 개선방안 및 공공지원

공공지원 확대, 새로운 홍보 전략 도입, 연주자 양성 프로그램 마련 필요

1) 공연 지속성 확보 방안

■ 현대음악 공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공차원에서 대관료, 연주 지원금, 홍보비 등에 대해 지원 필요

"현대음악 공연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공공 지원이 필수적임 공연장 대관료, 연주 지원금, 홍보비 등을 공공기관이 지원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유럽에서는 공공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대음악 프로젝트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CA006)

2) 공공차원에서의 홍보, 마케팅 지원 필요

■ 언론에 의존하는 홍보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홍보 전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

■ 공공차원에서 새로운 홍보 전략에 대한 교육과 시범 사업을 지원하면 새로운 홍보 전략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음

"새로운 홍보 전략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클라이언트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형성돼야 되는 거는 그거를 제안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저희 회사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어떤 협업을 넣었을 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선뜻 응하시는 경우도 있고, 의사결정이 안 돼서 회사 내부에서 몇 바퀴를 돌다 결국 이거는 검증되지 않아서 어렵겠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공공기관이 나서서 새로운 홍보 방식에 대한 교육과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빠른 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CA005)

3) 현대음악 연주자 양성 프로그램 마련 필요

■ 현대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여 연주자 양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르코 중장기 통해서 음대로 계속 지금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현재도 없는 것 같아요 저 때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커리큘럼이 또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그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대 학생이 작곡가 학생이랑 친해서 위클리나 이런 거 반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현대음악 경험할 게 거의,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CA006)

[그룹 4] 향유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 4]는 3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8] 그룹 구성 - [그룹 4] 향유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4] 향유	연번_23	2024-11-15	CA005
	연번_52	2025-01-05	CA007
	연번_52	2025-01-05	CA008
	연번_52	2025-01-05	CA009
	연번_52	2025-01-05	CA010
	연번_52	2025-01-05	CA011
	연번_53	2025-01-11	CA012

2. 참석자 명단

■ [그룹 4]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7인으로 구성됨

[표 2-9] 참석자 명단 - [그룹 4] 향유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4] 향유	연구협의체(n=1)	-	CA-A	여	-	-
	참석자(n=7)	향유	CA005	여	50대	17년
		향유	CA007	여	40대	25년
		향유	CA008	여	40대	10년
		향유	CA009	여	40대	30년
		향유	CA010	여	40대	20년
		향유	CA011	여	40대	10년
		향유	CA012	여	20대	6년

3. 주요 논의 사항

■ 클래식 입문의 다양화와 정보 부족

- 유튜브, 팬덤, 서포터즈 등 다양한 경로로 입문하나, 비전공자 대상 체계적 정보 제공은 부재함

■ 공연 선택 기준의 정교화와 장르 편중

- 프로그램, 악단, 연주자 중심의 선택 기준이 형성되며, 피아노·관현악 공연에 편중되는 경향 있음

■ 연주 단체에 대한 신뢰 문제

- 일부 지역 오케스트라의 연주 태도나 진정성에 대해 관객이 불신을 표함

■ 정보 유통 경로의 변화

- SNS, 큐레이션 계정 등이 공연 정보 획득의 주요 통로로 작용하며, 기존 언론 중심 구조와 병행됨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입문 채널의 다양화 및 향유 경험의 고도화

1) 입문 경로의 다양성과 팬덤 기반 향유 방식

■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연주자 팬덤, 유튜브 영상, TV 인터뷰 등을 통해 클래식 공연에 입문하는 사례 증가

■ 기존의 전통 교육 기반이 아닌 비공식적 계기를 통해 음악을 접하게 되며, 이후 자발적인 공연 관람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주를 이룸

"클래식 좋아하게 된 건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쇼팽 콩쿠르 우승했을 때였어요. 일요일 아침에 유튜브로 결승곡 들었는데, 40분짜리 협주곡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다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소리가 있구나 싶었고, 한 번 공연 가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예매했죠. 그다음 2월에 실황 공연을 처음 갔고, 그 이후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공연을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CA008)

2) 공연 선택 기준 고도화, 향유 경험의 고도화

■ 공연 관람이 누적될수록 감상 기준이 구체화되며, 프로그램의 곡목, 악단의 연주력, 지휘자와 협연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짐

■ 관객이 단순한 선호를 넘어 실질적인 감상 역량을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줌

"공연 선택할 때는 프로그램을 먼저 봐요. 내가 좋아하는 곡인지, 최근에 관심 있는 작곡가 곡이 있는지 그런 걸 봐요. 그다음엔 오케스트라가 기본 이상은 하는 팀인지 확인하고, 지휘자나 협연자도 다 같이 봐요. 생소한 이름이면 유튜브 찾아보고 연주 스타일도 들어보고요. 단순히 이름 있는 팀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편이에요." (CA012)

나. 생태계 이슈

향유 경험과 업계 운영 환경 모두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음

1) 일부 지역 악단의 연주 태도 문제, 관객 신뢰 하락

■ 일부 지역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기술적 완성도 이전에 공연에 임하는 태도나 집중도 부족으로 인해 관객의 신뢰를 얻지 못함

"대구시향은 고향이라서 몇 번 가봤어요. 연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성의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뭔가 그냥 '해야 해서 하는' 느낌? 저는 그걸 공무원스럽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태도가 보이면 아무리 곡이 좋아도 몰입이 확 깨져요. 실력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관객 입장에서는 더 크게 와 닿는 것 같아요." (CA012)

2) 특정 악기의 감상 기회 부족과 장르 편중

■ 공연 편성이 피아노, 바이올린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비올라나 오르간 등 특정 악기의 단독 공연은 드묾

■ 감상 경험의 다양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공연 기획의 기회 균형 문제로 귀결

"비올라 협연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비올라는 협연 레퍼토리도 많지 않고, 무대에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되게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가요. 예전에 콩쿠르 수상한 비올리스트가 협연하는 무대가 있었는데, 그건 정말 놓치기 싫어서 일정 조정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CA009)

3) 정보 접근의 자율성 강조, 시스템 지원의 공백 존재

■ 향유자들은 공연 정보나 음악 이해를 위해 SNS, 유튜브, 위키 등 비공식 채널에 의존

■ 입문용 자료는 실제 감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보 획득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는 구조

"공연 정보는 대부분 예술의전당이랑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간 스케줄 다 뒤져요. 프로그램 보고 나서 유튜브로 곡 찾아서 들어보고, 연주자나 지휘자도 찾아봐요. 영어 위키까지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해요. 입문서도 처음에 읽어봤는데, 너무 교양 수준이라서 실질적인 감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혼자 공부하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었어요." (CA012)

4) 홍보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실행 간의 괴리

■ 공연 홍보의 중심축이 언론에서 소셜미디어로 옮겨가는 환경 속에서도 실제 공연 기획자나 단체는 언론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행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드러냄

> "대중음악은 언론 홍보 없이도 알아서 퍼지잖아요. 근데 클래식은 아직도 언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한테 일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마음속으로 언론에 의존하는 게 커요. 새로운 PR 방식,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나 타깃 세그먼트 광고 같은 걸 제안하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망설이세요. 결국은 실행 못하고 원래 하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CA005)

[그룹 5] 공공/민간 지원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 5]는 1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10] 그룹 구성 - [그룹 5] 공공/민간 지원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5] 공공/민간 지원	연번_8	2024-08-30	CA013

2. 참석자 명단

■ [그룹 5]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7인으로 구성됨

[표 2-11] 참석자 명단 - [그룹 5] 공공/민간 지원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5] 공공/민간 지원	연구협의체(n=1)	-	CA-A	여	-	-
	참석자(n=1)	공공/민간 지원	CA013	남	50대	30년

3. 주요 논의 사항

■ 클래식 음악 분야 민간 재단 중심의 생태계 활성화
- 메세나 재단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클래식 아티스트 후원 및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국내 클래식 음악 기반 조성

■ 민간 중심 지원 체계의 재정적 불안정성
- 경제적 불황과 금리 하락, 모기업 사업 위축으로 인한 민간 재단의 재정 확보 어려움과 지속 가능성 문제

■ 공익법인 운영 관련 행정 비효율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적 비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 처리 지연 및 재단 운영의 실무적 어려움

■ 클래식 음악 지원 방식의 다각화 필요
- 현금 중심 지원을 넘어 해외 공연 기회 제공, 국제 매니지먼트 연계, 음반 제작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식 도입

■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신규 기부 체계 마련
- 모기업 기부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기업 및 개인의 신규 후원을 활성화하는 회원제 및 기부 프로그램 운영 필요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민간 클래식 음악 후원 생태계 현황

1) 민간 클래식 지원 재단의 장기적 운영 아티스트 육성 성과

■ 민간 주도의 클래식 음악 생태계 구축 및 안정적 운영 대원문화재단은 개인 기부를 통해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함. 대원음악상 시상과 주요 페스티벌 후원을 통해 국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함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음악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설립 이유고 [...] 처음에는 개인 기부를 통해서 10억 원 자본으로 시작을 했다가 차차 늘려서 지금은 현금 주식 포함 80억 넘는 기본 재산을 운영해서 이자 수익으로 목적 사업을 합니다." (CA013)
"대표적인 목적 사업 중 하나는 대원음악상이라는 시상식으로, 국내 클래식을 빛낸, 그리고 빛낼 가능성이 있는 아티스트를 후원하여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CA013)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해외 연주자들이 강원도라는 특수 지역에서 열리는 페스티벌로 [...] 약 14~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CA013)

2) 기업 CEO 대상 메세나 교육을 통한 후원자 육성

■ 삼성경제연구소와 협력한 '뮤직앤컬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명의 CEO가 클래식 음악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공연 정보 제공으로 민간 후원 활성화에 기여함

"삼성경제연구소와 협력해서 뮤직앤컬처라는 메세나 교육사업을 진행했는데, 6개 시즌 동안 CEO들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 결과 배출된 졸업생이 약 5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도 대기업 CEO나 오너들로 활동하면서 클래식 음악 후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단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연 정보 안내와 초청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013)

나. 생태계 이슈

민간 지원 구조의 한계와 공익법인 관리 비효율성으로 인한 지속성 위기

1) 경제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안정성 위협

■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민간 재단의 재정이 악화

■ 모기업 기부 축소가 재단 운영과 클래식 지원 사업의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코로나로 주요 행사가 열리지 못해 수익이 줄었고, 모기업에서 기부가 적어지면 재단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CA013)
"이자율이 안 좋을 때는 사실상 이자 수익만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최근 재단 수익이 줄어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CA013)

2) 공익법인 관리 행정의 전문성 부족 및 절차 비효율성

■ 관련 부처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예산·결산 보고 및 서류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혼란과 비효율성이 발생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서인데, 문체부 직원들이 다 순환보직이라서 재단 관련 예산 결산을 올릴 때마다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해도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수정 요구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신청서를 내도 '이게 아니다, 다른 걸로 다시 내라' 이런 식의 혼란이 많아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이 심각합니다." (CA013)

다. 개선방안 및 공공지원

기부금 확보 및 다각적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운영 안정화 방안

1) 신규 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 재단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모기업 외에도 다양한 외부 기업과 개인 후원자를 확보하는 회원제 및 신규 기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저희 재단은 모기업의 기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는 회원제 등 기부금 모집 활동을 재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CA013)
"향후 몇 년 동안은 일반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재단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A013)

2) 다양한 후원 방식을 도입하여 실질적 아티스트 지원 확대

■ 단순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매니지먼트 연계, 해외 공연 지원, 음반 제작 등 아티스트의 실질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식 도입이 요구됨

"아티스트 후원의 방식도 지금 현금 지원 중심에서 다양하게 바뀌가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공연의 기회를 만들어 주거나, 해외의 글로벌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준다거나, 또는 음반 제작을 지원하는 방식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후원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지원 방식 변화가 아티스트들이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CA013)

[그룹 6] 진입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 6]은 5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12] 그룹 구성 - [그룹 6] 진입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6] 진입	연번_4	2024-08-25	CA014
	연번_6	2024-08-27	CA015, CA016
	연번_20	2024-11-13	CA017, CA017_1, CA017_2
	연번_47	2024-12-26	CA018
	연번_54	2025-01-22	CA002

2. 참석자 명단

■ [그룹 6]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6인으로 구성됨

[표 2-13] 참석자 명단 - [그룹 6] 진입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6] 진입	연구협의체(n=1)	-	CA-A	여	-	-
	참석자(n=6)	진입	CA014	남	-	-
		진입	CA015	여	30대	9년
		진입	CA016	남	40대	15년
		진입	CA017	여	40대	17년
		진입	CA017_1	-	-	-
		진입	CA017_2	-	-	-
		진입	CA018	여	40대	15년
		진입	CA002	남	-	-

3. 주요 논의 사항

■ 음악 진입 경로의 편중과 격차

- 조기 입시 중심 구조로 인한 진입 시기의 고착화와 전공별 진입 여건의 불균형

■ 세부 전공의 제도적 기반 부족

- 지휘·고음악 등 특수 전공의 낮은 진입 장벽과 양성 시스템의 미비

■ 실연 중심 교육의 한계

- 실습 기회의 제한과 테크닉 위주 교육으로 인한 창의성·해석력 저하

■ 전공자의 생태 환경과 활동 기반 취약

- 연주 공간, 관객층, 수입 구조 등 실연자 생태계의 구조적 열세

■ 공공지원의 정교화 필요

- 전공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과 실연 기반 교육·활동에 대한 공적 개입 필요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음악 전공자의 진입 과정과 교육 흐름

1) 가정환경과 조기 경험의 중요성

■ 음악가 가족 환경이 진입 경로에 미치는 영향

- 부모가 음악가이거나 예술 친화적 환경에서 자란 경우, 자연스럽게 음악에 노출되고 조기 진입 경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어릴 때부터의 공연·악기 경험이 전공 선택에 작용

- 공연 관람, 악기 연주 등 음악 경험이 일상에 가까운 상태에서 전공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흐름이 나타남

■ 개인적 자원에 따라 진입 기회 격차 발생

- 가정 배경에 따라 진입 조건과 속도가 달라지며, 음악 분야 진입에서 환경적 자원의 비중이 크게 작용함

"부모님 두 분 다 작곡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듣고, 악기를 접하고,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게 된 게 굳이 언제부터였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어릴 땐 바이올린을 했다가 피아노도 하고, 결국엔 지휘로 가게 된 거죠." (CA014)

"그냥 어려서부터 음악을 하는 환경이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음악학원 다니고, 그게 저한테는 특이한 일이 아니었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냥 피아노가 일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마 부모님이랑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CA015)

"공대 다니다가 21살에 뒤늦게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때 처음 음악사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특히 고음악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런 게 흥미로워서 이 길로 오게 됐죠. 저는 약간 우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에스노 뮤직에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CA016)

"저는 고등학교 때도 예술 쪽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대학교 와서 친구 따라서 우연히 공연을 봤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음악회 자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물론 집안에 음악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CA017)

"음악을 진로로 결정하게 된 이유요? 제 경우는 어릴 때부터 콘서트홀이나 성당에서 하는 클래식 공연을 자주 접했어요. 직접 연주를 하지 않아도 듣고 보는 경험이 많았던 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CA018)

2) 제도화된 입시 구조 속 조기 진입 경로의 고착화

■ 조기 입시 체계가 전공자 진입 경로로 자리 잡음

- 예비학교, 영재교육원, 예중·예고로 이어지는 입시 체계가 음악 전공 진입의 대표적 경로로 작동함

■ 악기 중심 전공은 초등 저학년부터 조기 진입

- 피아노, 바이올린 등은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전공 진입이 일반화되어 있음

■ 전공별 진입 시기의 차이 존재

- 작곡, 관악 등은 신체적 발달이나 제도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음

"처음에는 예비학교였어요. 그러다가 영재교육법 생기면서 영재교육원으로 바뀐 거고요. 예비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들어와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최소한 다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는 구조가 생긴 거죠." (CA002)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들어와요. 작년에는 피아노가 특히 많았고요. 임윤찬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경쟁률도 꽤 높았어요. 작곡은 좀 늦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작곡으로 오는 애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피아노 하다가 넘어와요." (CA002)
"예고에 지휘 전공이 없어서 처음엔 작곡으로 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휘 레슨을 따로 받기 시작했고, 대학교는 지휘 전공으로 갔죠. 그러니까 지휘는 진입 시기도 늦고, 시작 자체가 어려운 전공이에요." (CA014)
"저희 교육원은 매년 선발 시험을 봐요. 거의 대부분 다시 선발되긴 하지만, 그래도 매해 시험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있죠. 학부모들 입장에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매년 경쟁해야 하니까." (CA002)

3) 지휘·고음악 등 일부 세부 전공 진입 경로의 협소함

■ 지휘 전공은 학부 과정이 드물고 정원도 제한적임

- 지휘 전공 학부 과정 자체가 적고, 매년 극소수만 선발되어 진입 경로가 매우 협소함

■ 고음악 전공은 모던 전공에서의 전환이 일반적임

- 고음악 연주자는 기존 악기 전공자들이 전향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계적 양성 경로는 부족함

■ 개인 사유로 인한 전공 전환 사례 존재

- 통증, 경력 단절 등의 계기로 새로운 전공에 진입하는 경우도 일부 나타남

"지휘 전공은 학부에서 거의 없어요. 저도 예고 때 지휘를 하고 싶었는데 전공이 없어서 작곡으로 들어갔다가, 따로 레슨 받으면서 지휘 준비했어요. 서울대 지휘과로 간 것도 사실 선택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CA014)
"지휘과가 정원이 너무 작아요. 제 학번은 저 혼자였어요. 다른 학번도 많아야 두 명 정도였고, 어떤 해는 아예 신입생이 없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적으니까 수업도 개설이 어렵고, 학교 입장에서도 운영이 쉽지 않죠." (CA014)
"저는 원래 모던 바이올린을 했어요. 근데 근육 경련이 너무 심해서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바로크 바이올린을 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는데,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서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CA015)
"저는 원래 클래식 기타를 전공했어요. 공대 다니다가 뒤늦게 음대 들어갔고, 고음악은 교수님 수업 듣다가 흥미 생겨서 시작하게 됐죠. 그 전에도 전통 음악이나 월드뮤직에 관심이 있긴 했어요." (CA016)

나. 생태계 이슈

진입 이후의 구조적 제약과 불균형

1) 실연 중심 교육의 협소한 실습 기회

■ 지휘과 학생의 실습 기회는 제한적임
- 지휘 전공자는 학생 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일부 악장만 실습하며, 실연 경험을 쌓기 어려움

■ 고음악 연주자는 공간 제약으로 대안 무대를 활용함
- 고음악 연주에 적합한 공연장이 부족해, 성당이나 대안 공간에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음

■ 실기 중심 교육 체계와 실전 기회의 불균형
- 실기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지만, 실제 공연 실습 기회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지휘과는 실습이 진짜 부족해요. 오케스트라 수업도 사실 많지 않고, 있어도 협주곡 한 악장 정도 지휘해보는 게 다예요. 그 정도 경험 가지고 졸업하는 거죠." (CA014)
"외국에서는 지휘 실습할 때 진짜 프로 오케스트라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학내 오케스트라로 하니까 한계가 많죠. 지휘 경험이 쌓일 수가 없어요." (CA014)
"공연장이 없으니까 성당 같은 데 찾아다녀야 해요. 고음악에 어울리는 공간이 한국엔 거의 없고, 일반 공연장은 음향도 너무 안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대안 공간을 찾아서 무대도 만들고, 다 셋업해서 해요." (CA015)
"공연장이 없어서 관객이 없는 게 아니라, 관객이 있어도 공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연이 중요한 장르인데도, 무대 기회는 너무 부족하죠." (CA016)

2) 과도한 기술 중심 교육 문제

■ 국내 음악 교육은 테크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주 기술과 정확성 위주의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창의적 해석이 상대적으로 소홀함

■ 연주자 개성과 해석력 발현에 한계가 있음
- 자신만의 음악적 색을 드러내는 훈련 기회가 부족해 개성 있는 연주자로 성장하기 어려움

■ 지휘 교육에서 테크닉 편중 현상이 특히 두드러짐
- 지휘 전공자는 바톤 기술 등 기본기에 집중하며, 음악 해석이나 상상력 훈련이 제한됨

"유학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너무 잘하긴 하는데, 네 음악은 어디 있니?'라는 식이죠. 기술은 좋은데 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교육 시스템 탓도 크다고 생각해요." (CA014)
"지휘 레슨 받을 때도 보면, 바톤 기술이나 템포 정확도 같은 걸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해석은 사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CA014)
"음악사 수업 들으면서 진짜 음악의 맥락 같은 걸 처음 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잘 연주하느냐'가 다였거든요. 그래서 고음악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도 있어요." (CA016)
"모던 악기는 정확한 연주가 최우선인데, 바로크는 해석이 먼저거든요. 그 차이가 되게 컸어요. 기교보다는 이 음악이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됐죠." (CA015)

3) 장르별 불균형 문제

■ 고음악 연주자 수가 적고 악기별 전문 인력도 희소함
- 테오르보, 비올 등 고음악 악기의 연주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인력 기반이 매우 협소함

■ 고음악 장르는 무대, 관객층, 창작 여건에서 열세를 보임
- 모던 음악과 비교해 공연 기회, 청중 수요, 창작 환경 모두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

■ 주요 활동 기반이 국내보다 해외에 집중됨
- 연주의 상당 부분이 성당 등 해외 무대에서 이루어지며, 국내 기반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테오르보 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지금 국내에 연주하는 사람 손에 꼽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대부분 유학 갔다가 거기서 활동하거나, 한국에 들어와도 혼자예요." (CA016)
"비올은 악기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연주자가 워낙 적고, 마스터클래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배울 수 있는 루트가 없다고 봐야 해요." (CA015)
"고음악 연주는 성당이 제일 잘 맞아요. 근데 그런 공간이 한국엔 거의 없어서 해외 공연이 많아지고, 결국 거기서 수입이 생기죠. 국내에선 정기적으로 공연하기도 어렵고요." (CA015)
"한국에서 고음악 공연해도 오는 사람은 거의 전문가거나 관계자예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무대도 적고 관객도 한정돼요." (CA016)

다. 개선방안 및 공공지원

진입 경로 다양화와 실연 중심 교육 강화 필요

1) 세부 전공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세부 전공마다 진입 조건과 양성 구조에 차이가 있음
- 지휘, 고음악, 실내악 등은 각기 다른 진입 장벽과 교육 여건을 지님

■ 고음악 전공자는 공간과 악기 인프라 부족에 직면함
- 고음악 연주는 전용 공간과 특수 악기가 필수지만 확보 여건이 매우 열악함

■ 지휘 전공자는 실습 오케스트라 연계가 필수적임
- 지휘자는 실전 경험이 5핵심이므로 외부 오케스트라와의 실습 연계가 절실함

"고음악은 공간이 제일 문제예요. 현대식 공연장은 잔향도 너무 다르고, 무대 구조 자체가 안 맞아요. 결국 우리가 직접 공간을 찾아서 셋업하고 연주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CA015)
"테오르보는 그냥 사면 끝이 아니에요. 이 악기를 누가 수리해줄 수 있는지도 문제고, 소모품도 수입해야 하니까 유지비가 꽤 들어요. 이걸 혼자 다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CA016)
"지휘는 실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어요. 결국 외부 오케스트라랑 연계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CA014)
"세부 전공별로 필요한 조건이 너무 달라요. 고음악은 공간이나 악기 문제고, 지휘는 실연 기회가 부족하고... 그냥 '음악'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CA014)

2) 실연 중심 실습 환경 확보를 위한 공공적 개입 요구

■ 학교 교육만으로는 실연 기회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실연 중심 전공은 교내 커리큘럼만으로 충분한 경험을 쌓기 어려움

■ 외부 단체와의 연계가 실습 환경 확보에 중요함
- 오케스트라 및 공연 단체와의 협력이 실전 역량 강화에 필수적임

■ 고음악 분야는 공공이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함
- 대안 공간, 기획 공연 등에서 공공의 적극적인 중개·지원이 필요함

"지휘는 오케스트라랑 같이 해보는 게 핵심인데, 학교에선 기회가 너무 없어요. 정작 실습이 필요할 때 외부 단체랑 연결이 안 되니까, 졸업할 때까지도 제대로 지휘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CA014)
"프로 오케스트라랑 실습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공공이 중간에서 연결만 해줘도, 훨씬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어요." (CA014)
"저희는 공연장을 매번 직접 섭외하고 셋업까지 다 해요. 대안 공간도 우리가 찾아야 하고, 기획도 다 우리가 해요. 근데 그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라서, 공연 자체가 불규칙해져요." (CA015)
"공연 인프라도 그렇고, 기획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고음악은 그냥 무대 하나 얻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르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같이 고민해야 하거든요." (CA016)

3) 기술 중심 교육에서 창의성과 해석을 중시하는 방향 전환 필요

■ 해석력과 예술적 개성을 기르는 교육 전환이 필요함
- 실연자가 음악적 해석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의 전환이 요구됨

■ 교수진 역량 강화와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전공 교수의 연수, 국제 교류를 통해 교육 방식의 다변화가 이뤄져야 함

■ 단순 기량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난 기준이 필요함
- 기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표현력을 반영하는 평가 체계가 필요함

"지휘 레슨도 보면 다 테크닉 중심이에요. 바톤 모양이 맞느냐, 박자가 정확하냐 같은 거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인데, 그런 걸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CA014)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거긴 질문을 훨씬 많이 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이 템포를 택했는지, 왜 이런 곡 해석을 했는지를 말하게 하거든요. 그런 게 진짜 교육인 것 같아요." (CA014)
"교수님들도 본인의 경험 안에서만 가르치다 보니까, 접근이 되게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해외 프로그램이나 다른 전공 교수랑 교류하면서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CA015)
"지금은 그냥 기교만 잘하면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연주는 결국 표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길러줄 수 있을지를 교육 시스템이 같이 고민해야죠." (CA016)

[그룹 7] 공공예술단체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7]은 개의 11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14] 그룹 구성 - [그룹 7] 공공예술단체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7] 공공예술단체	연번_4	2024-08-25	CA014
	연번_10	2024-09-06	CA019
	연번_12	2024-09-18	CA020
	연번_19	2024-11-12	CA021
	연번_24	2024-11-15	CA022
	연번_26	2024-11-19	CA023
	연번_29	2024-11-20	CA025,CA026
	연번_28	2024-11-20	CA024
	연번_30	2024-11-21	CA027
	연번_32	2024-11-22	CA028
	연번_37	2024-11-28	CA029
	연번_51	2024-12-30	CA030

2. 참석자 명단

■ [그룹 7]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13인으로 구성됨

[표 2-15] 참석자 명단 - [그룹 7] 공공예술단체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7] 공공예술 단체	연구협의체(n=1)	-	CA-A			
	참석자(n=13)	공공예술단체	CA014	남	-	-
		공공예술단체	CA019	남	60대	30년
		공공예술단체	CA020	여	50대	20년
		공공예술단체	CA021	남	40대	15년
		공공예술단체	CA022	여	40대	20년
		공공예술단체	CA023,CA026	남	40대	14년
		공공예술단체	CA024	남	40대	20년
		공공예술단체	CA025	남	40대	14년
		공공예술단체	CA027	남	50대	12년
		공공예술단체	CA028	여	40대	12년
		공공예술단체	CA029	남	50대	30년
		공공예술단체	CA030	남	40대	10년

3. 주요 논의 사항

■ 공공예술단체의 운영 구조
- 정규직 중심 고용과 근무 조건, 공연 기획의 이원화 구조 등 운영 체계의 안정성

■ 예술성과 공공성의 균형
- 정기 공연과 기획 공연을 통한 예술적 깊이와 대중적 접근성의 병행 전략

■ 조직 내 리더십과 행정 문제
- 상임지휘자 공석, 기획·행정 이중구조 등 운영상 비효율과 리더십 공백 문제

■ 재정 구조와 자생력
- 예산의 공공 재원 의존, 자립적 수익 모델 부재 등 재정 구조의 취약성

■ 인재 육성과 생태계 순환
- 젊은 지휘자·연주자 성장 경로 부족, 체계적 인력 육성 시스템 부재

■ 공공지원과 제도 개선
- 공연장 환경 개선, 행정 인력 확충, 멘토링·레지던시 등 제도 기반 확충 필요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공공예술단체의 운영 구조와 문화적 역할에 대한 실태 분석

1)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예술단체 운영 구조

■ 공공예술단체의 정규직 상근 구조, 예술 노동 안정성 확보

- 대부분의 공공예술단체는 전 단원을 정규직으로 상근 채용하며, 정년 보장과 고정 급여 체계를 유지함. 이러한 구조는 예술가의 생활 안정과 장기적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함. 단기 프로젝트나 비정규 계약이 많은 민간 예술 환경과 비교할 때, 공공단체는 지속 가능한 예술 노동 생태계의 기반으로 작동함

■ 근무 시간 이원화 운영, 조직의 전문성 확보

- 예술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무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역할에 따른 근무 시간 분리가 이뤄짐. 이는 연주자와 행정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예술 기획과 행정 지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직 운영 방식으로 평가됨. 창작의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함

"보통 어쨌든 여기는 교향악단이 다 시 소속으로, 또 계약직, 보통 공무원 신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상시 출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시 출근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간단한 행정적인 거, 사무적인 거를 좀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 상임 지휘자가 들어가는 연주 다 들어가서 보조하고, 정기 연주회를 맡을 수도 있고." (CA014)
"어쨌든 계약직으로 어쨌든 준 공무원 신분에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데도 간혹 있는데, 꼭 매일 출근을 안 해야 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일을 봐야 되고 그렇죠." (CA014)
"우리는 여러 가지 노동법이나 이런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1년 2년 이렇게 롱텀으로 못하고 10개월 단위로 [...] 정규직 이런 것들이." (CA019)

2) 예술성과 공공성을 병행하는 공연 기획 체계

■ 정기 공연은 예술성 중심의 작품으로 정체성 강화

- 정기 공연은 말러, 브루크너 등 대규모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예술단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함. 상임 또는 저명 지휘자 중심의 운영으로 전문성과 완성도를 확보함

■ 기획 공연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 프로그램 운영

- 기획 공연은 해설 음악회, 청소년·가족 공연, 영화·만화 음악 등으로 구성되며,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됨. 초심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공공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함

■ 예술성과 대중성의 병행 전략을 통한 관객층 확대

- 정기 공연과 기획 공연을 병행하는 구조는 고급 향유층과 입문층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임. 이를 통해 예술단체는 예술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며, 지역 기반 문화복지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음

"제가 한 역할은 일단은 상임 부지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주로 하는 역할은 이제 정기 공연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밑에는 여러 가지 기획 공연, 기획 연주회들이 있고, 혹은 또 이제 시에 어쨌든 소속이다 보니까 또 이게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CA014)
"주로 부천시민들의 예술 문화 향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고 시민들 수준에 맞는 그걸 했는데 [...] 말러 시리즈를 전국을 하면서, 이제 전국에 알려지면서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전국구 오케스트라가 돼버려서." (CA020)
"100회 정도 됩니다. 정기 연주만 정기 연주는 딱 12번이에요." (CA022)

3) 지방예술단의 역사성과 지역 문화 자산화 과정

■ 지역 정체성을 형성해온 역사적 예술 플랫폼
- 부천필, 대전시향 등은 수십 년간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로 기능하며, 도시 정체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함께 구축해 온 예술 플랫폼임.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 형성에 기여함

■ 예술인 양성과 시민 향유 확대라는 다층적 목표
- 창단 초기부터 예술인 육성과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동시에 추구해왔으며, 지역 내 문화 기반 조성과 예술 생태계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공연장 신축 및 예술감독 운영 등 정책 연계
- 공연장 건립, 음악 감독제 운영 등은 지역문화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어 왔으며, 공공예술단체는 자치단체 문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동해 왔음

"부천시민의 문화 향수와 예술에 관련된 문화 이바지하는 그런 창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 부천시의 이미지를 약간 조금 바꾸기 위한, 문화적으로 좀 바꾸려고 그런 일환에서 만들어졌어요." (CA020)
"국립 단체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서 [...] 전국에 있는 지방 공연장들에서 사업들을 펼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고 [...]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작곡가 지휘자 젊은 음악가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A023)
"제가 서류에 직접적으로 결재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사실 없고. 이제 무슨 연주를 이렇게 진행할 때 누구를 섭외하는데 어떤 식으로 페이는 어떤 식으로 할 거며, 그런 내용들 간 같이 좀 이렇게 협의하고, 어디 공연장에서 조금 연주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회의해서 결정하는 정도." (CA014)

나. 생태계 이슈

공공예술단체 운영 리더십, 조직 구조, 재정 기반의 취약성과 개선 과제

1) 상임지휘자 공석 및 예술단 리더십 부재 문제

■ 상임지휘자 부재로 공연 기획의 방향성 약화

- 일부 공공예술단체는 상임지휘자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공연 기획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이 어려운 상황임. 예술단의 정체성과 정기 공연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침

■ 예술적 일관성 확보를 위한 리더 십의 중요성

- 정기 공연과 연간 기획을 예술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선 상임지휘자의 리더십이 필요함. 단체 운영의 안정성과 창작 기획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임

■ 인사 구조의 불안정성이 예술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인사 제도상 공백이 잦아 지휘자 교체가 반복되며, 예술적 흐름이 단절되고 단체의 정체성 유지가 어려움. 리더 십 공백은 직접적으로 예술적 성과에 영향을 미침

"상임 지휘자가 없다 보니까 정기연주는 객원 지휘자들한테 맡기고, 협연자 섭외는 사무국에서 하고, 기획연주는 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돼요. 상임이 있을 때는 연간 틀이 있었고, 작품 기획 방향도 잡혔는데 지금은 매번 새로 정하는 느낌이에요." (CA020)
"오케스트라는 성장을 하려면 꾸준한 시간이 필요한데 단시간에 무너지는 건 1년도 안 걸려요. 지휘자가 자주 바뀌면 음악 흐름도 단절되고, 쌓아온 내공이 이어지지 않아요. 결국 단체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CA027)
"저도 1년 플랜을 짜야 하는 입장에서, 계약이 어정쩡하게 끝나니까 내년 계획을 짜면서도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구조에선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요." (CA027)

2) 행정업무 과중 및 이중구조에 따른 비효율

■ 역할 분담 미비로 공연 기획 과정의 비효율 발생

- 연주자와 행정 담당자 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공연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단체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

■ 중복 업무와 협업 부재로 조직 내 갈등 유발

- 일부 단체에서는 예술감독과 사무국이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거나 협업이 부족해 갈등이 생기고 있음. 조직 내 기능 분화와 소통 구조 개선이 필요함

■ 획일적 재정 구조와 낮은 자립성

- 공공예술단체는 지방정부 예산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수익 구조가 취약함. 관객 기반 확대와 민간 재원 연계를 통한 재정 다변화가 요구됨

"저희는 사실은 교향악단 스탭 중에 저희는 기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기획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기획이 필요하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죠. 기획 파트가 하나 있어야 저는 저대로 또 다른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기획까지, 전체적인 걸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려니까 사실 좀 과부화이긴 사실이에요. [...] 서울시향에 가면은 기획도 1팀, 2팀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팀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사람이 기획도 해야 되고, 정기도 해야 되고, 일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발전할 수가 없죠, 발전할 수가 없죠. 행정적으로도. 그 일에 밀려다니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A029)

"그거는 노조 문제도 솔직히 잘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도 예산이 있어야지 하는 거고 뭐 모르겠어요. [...] 공연 예산은 더 작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광주보다 작아요 확실히 작아요." (CA025)

3) 재정 구조의 획일성과 자체 수익 기반 부족

■ 지자체 예산 의존 중심의 재정 구조
- 공공예술단체는 운영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 일반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수익 기반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임. 재정 자율성이 낮음

■ 수익사업 한계와 관객 기반 정체
- 기획 공연 수입은 규모가 작고, 관객층도 고정되어 있어 수익 확대가 어려움. 민간 협찬이나 다양한 유료 프로그램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됨

■ 중장기 운영을 위한 재정 다변화 필요
- 안정적인 예술단체 운영을 위해선 공공 예산 외에도 자생적 수익 모델이 필요함.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재원 연계 전략이 강조됨

"저희가 사실 이거를 작년 저번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상금을 줬거든요. [...] 근데 그게 그냥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되게 타이트한 구조예요. [...] 또 연습실 부족하면은 예산 재원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 그럼 만들어줄게 했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제한적인 이야기고." (CA023)

"부천시에 줬는데 그게 부천시로 들어가 버리면 그 해에 10억을 다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 우리는 후원회나 협찬을 만들 수가 없잖아." (CA020)

"모든 게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서포트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 [...]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서 확실하게 그런 것을 우리의 장기 플랜으로, 우리의 미션으로 생각하고 그걸 크게 말뚝을 하나씩 박아주면 좋겠다." (CA019)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공공예술단체의 지속 가능성과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

1) 공공공연장의 질적 개선과 거점화 전략 필요

■ 공연장 환경 개선이 예술단체 기획력에 미치는 영향

- 공연장의 음향, 무대, 접근성 등 물리적 환경은 예술단체의 기획력과 관객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 질적 개선이 필수적임

■ 서울 중심 공연 의존도 완화와 지역 중심 운영 가능성

- 부천과 대전은 아트센터 신축 이후 서울 의존 없이 정기공연을 운영하며 지역 중심의 창작 활동 기반을 구축함. 지역 자립에 기여함

■ 지역 특화 거점 공연장 확보 필요성

- 각 지역 단체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맞는 전용 공연장 확보가 필요함. 예술단체 운영의 지속성과 정기 프로그램 운용의 기반이 됨

"공연이라는 게 이제는 공연만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사전에 일어나는 행위부터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가 공연의 하나의 패키지가 됐어요. 부천 같은 데는 공연장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 요즘은 젊은 관객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QR코드, SNS 다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공연장의 물리적 환경이 관객 만족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CA022)
"부천, 대전처럼 아트센터가 생긴 곳은 이제는 서울 의존 없이 정기 공연이 가능하잖아요. 우리도 정기 공연하려면 서울 예술의전당 잡아야 하는데 대관이 너무 힘들어요. 롯데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지역 기반 공연장이 생긴 지역은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CA022)
"예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공연 떨어지면, 진짜 갈 데가 없었어요. 아버지 합창단이 공연하고 우리는 떨어지는 현실이었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거점 공연장이 없으면 우리는 정체성 유지도 어렵고, 연주자 동기 부여도 어려워요." (CA022)

2) 차세대 예술 인력 육성 체계 구축 필요

■ 공공단체 차원의 제도적 인력 육성 기반 필요

- 예비 연주자와 신진 예술인이 무대 경험을 쌓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예술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인력 발굴과 역량 개발이 연계되는 구조가 부재하며, 주요 무대 경험이 기획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 멘토링 및 레지던시 기반의 성장 시스템 마련 시급

- 해외 사례처럼 교육과 실전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멘토링 및 레지던시 시스템이 필요함. 공공단체는 젊은 예술인이 현장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무대 제공과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갖춰야 함

"서울시향 같은 경우도 사실 젊은 예술가들, 특히 연주자 쪽에서는 뭔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턴 형태가 없어요. 그냥 객원으로 들어와서 한번 연주하고 끝나는 거지, 체계적인 시스템은 없다 보니까 계속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죠." (CA028)
"국립심포니도 사실 젊은 연주자나 예술인들 키워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나 인력 부족 때문에 그게 항상 실현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취지로만 남는 경우가 많았죠." (CA023)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유스 프로그램 같은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육성하려면 꼭 필요한데, 우리 단체에서 운영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막상 하려고 하면 인력도 필요하고, 교육 콘텐츠도 준비해야 하니까 실행까지 못 간 사례가 많아요." (CA022)

3) 예술단체 전용 기획·행정 인력 확충 필요

■ 공연 행정이 외부 위탁에 의존해 체계성 부족
- 공공예술단체의 기획 행정은 공연자나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의 체계성과 기획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내부 상설 조직 구성을 통한 안정적 운영 필요
- 상설 기획팀, 홍보팀 등 예술단체 내부에 전담 조직을 갖추어야 함. 조직 구조가 불안정하면 공연의 지속성과 기획력 확보가 어려움

■ 기획 전문 인력의 채용과 교육 지원 병행 필요
- 기획·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함

"저희 PD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계약직이 한 분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콘텐츠를 좀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고. [...] 근데 그거는 연속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고정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게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CA021)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그러니까 서울시향에 가면은 기획도 1팀, 2팀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팀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사람이 기획도 해야 되고, 정기도 해야 되고, 일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발전할 수가 없죠, 발전할 수가 없죠. 행정적으로도. 그 일에 밀려다니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A029)

[그룹 8] 공연장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8]은 10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16] 그룹 구성 - [그룹 8] 공연장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8] 공연장	연번_13	2024-10-02	CA031
	연번_15	2024-11-05	CA032
	연번_18	2024-11-08	CA033
	연번_22	2024-11-14	CA034
	연번_31	2024-11-21	CA035
	연번_34	2024-11-26	CA036
	연번_35	2024-11-27	CA037
	연번_36	2024-11-28	CA038
	연번_38	2024-11-29	CA039
	연번_40	2024-12-04	CA040, CA041

2. 참석자 명단

■ [그룹8]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11인으로 구성됨

[표 2-17] 참석자 명단 - [그룹 8] 공연장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8] 공공예술 단체	연구협의체(n=1)	-	CA-A			
	참석자(n=11)	공연장	CA031	여	40대	15년
		공연장	CA032	여	50대	20년
		공연장	CA033	여	40대	21년
		공연장	CA034	남	50대	35년
		공연장	CA035	여	40대	24년
		공연장	CA036	남	40대	4년
		공연장	CA037	여	40대	8년
		공연장	CA038	남	50대	30년
		공연장	CA039	여	50대	31년
		공연장	CA040	여	50대	25년
		공연장	CA041	여	30대	14년

3. 주요 논의 사항

■ 공연장 운영과 창작 콘텐츠의 균형
- 공연장의 대관 위주 운영 구조 속에서 기획공연과 새로운 시도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공연장 정체성 확립을 위한 창작 콘텐츠의 필요성

■ 공연장 인력과 전문성 체계
- 공연장 내부의 팀 구성이 기획, 기술, 마케팅 등으로 분화되어 있으나, 각 영역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 공연장의 수익성과 자생력 확보
- 수익 구조가 대관에 치우쳐 있으며, 클래식 및 대중공연 모두에서 예측 불가성과 적자 구조가 문제로 지적됨. 새로운 관객 유입을 위한 기획과 수익성 간의 딜레마 존재

■ 공연장의 관객 확대 전략
- 마티네, 리사이틀, 필름 콘서트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관객층 저변을 확대하려 하나, 반복 프로그램에 대한 한계와 관객 피로도도 함께 발생

■ 공공지원과 공연장 중심 정책 필요
- 기술인프라 보완, 상주 프로그램 확대 등 공연장 중심의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재단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공연장 운영의 현실과 전략

1) 기획 공연과 대관 운영의 현실적 균형

■ 기획 공연은 전체 운영의 20% 수준, 대관 중심 구조 지속

- 공연장의 기획 공연 비중은 전체 운영일수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대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창작 프로그램 확대 시도에도 대관 수익 의존은 여전

- 일부 공연장은 마티네, 리사이틀 등으로 기획공연 비중을 확대하려 하지만,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관 중심 운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다섯 명이고 콘서트홀도 여기도 예술의전당과 마찬가지로 기획이랑 대관으로 나뉘어서 구분이 될 텐데,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대관이 8, 기획이 2 정도." (CA032)
"기획이 37회, 그다음에 대관이 389회예요. 마티네까지 포함해서요." (CA032)
"초창기 3개년을 보면 저희가 기획 공연도 많이 했었고, 오케스트라, 마티네, 오르간 리사이틀도 많이 시도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대관 중심으로 갔죠." (CA032)
"그래도 저희가 오르간 오디세이, 클래식레볼루션 같은 걸로 와꾸를 잡고 기획공연을 넣으려 하긴 해요. 그런데 결국 수익성 때문에 전체 운영은 대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CA032)
"해외 내한 오케스트라는 연간 4~5번 정도가 한계고, 나머지는 리사이틀 몇 개, 해설 음악회 정도예요. 전체를 봤을 땐 기획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작아요." (CA032)

2) 공연장 팀 구성과 기능 분화

■ 공연장 조직은 기획·기술·대관 등으로 세분화 운영

- 공연장 운영에는 공연기획팀, 무대기술팀, 대관팀, 마케팅팀, 경영지원팀 등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며, 팀 간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

■ 마케팅팀의 독립 운영, 디지털 전략 병행

- 일부 공연장에서는 마케팅 기능이 독립 부서로 운영되며, 언론 홍보 외에도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전략이 강화되고 있음

"정확히 공연장 운영팀, 공연기획팀, 무대기술팀 그리고 마케팅팀 이렇게 공연장을 돌리는 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관리팀은 전체적으로 전시팀, 기획팀이랑 마케팅이 나뉘어져 있어요." (CA032)
"작년까지는 저희가 홍보 마케팅까지 같이 했었는데, 새로 오셔가지고 마케팅팀을 따로 분리를 시키셨어요. 거기서 언론 홍보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따로 하고요." (CA032)
"원래 회원 그 유료 회원을 공연장 운영팀이 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그게 사실은 마케팅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난달에 마케팅팀으로 넘어갔어요." (CA032)
"저희가 공연에 대한 신사업도 따로 트래킹을 해요. 그게 공연기획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케팅팀이나 경영지원 쪽에서 연결해서 하죠." (CA032)

3) 공연장 세트업과 기술 인프라의 강점

■ 음향 조건 우수 및 장비 보유로 콘텐츠 다양화 가능
- 일부 공연장은 음향 잔향이 좋아 마이킹이 적게 필요하고, 스크린·프로젝터 등 자체 장비를 보유해 필름 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 운영에 적합함

■ 신속한 세트업 가능, 대관 경쟁력 확보
- 무대 세팅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환경은 대관 공연팀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공연장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저희 공연장 세트업이 굉장히 빠르고요. 음향 잔향도 좋아서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편이에요. 음향 세트업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외부 대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CA031)
"스크린이 있고, 프로젝터도 자체 보유하고 있어서 필름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장비 렌탈 없이 내부 시스템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대관하러 오는 팀들이 그런 점에서 만족도가 높아요." (CA031)
"음향 문제로 좌석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실제 판매 가능한 좌석이 줄어요. 특히 대중공연의 경우엔 세팅이 공연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CA031)
"그 공간은 잔향이 굉장히 짧게 설계돼 있어서 클래식 공연보다는 콘서트용으로 설계된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선택에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CA034)
"조명이 좀 더 정교하게 설치돼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LED 조명은 있었지만, 색감이나 밝기 조절 같은 건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CA035)

나. 생태계 이슈

공연장 운영의 수익 구조와 창작 지속의 어려움

1) 공연 수익성의 한계와 예측 불가능성

■ 클래식 공연은 구조적 적자 문제 지속

- 클래식 장르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많은 공연장에서 고정 적자를 감수한 채 운영되고 있음

■ 대중 공연도 흥행 예측 어려워 수익성 불안정

- 대중음악 공연은 방송 출연 여부나 팬덤의 크기에 따라 성패가 갈리며, 공연 흥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음향 세팅으로 인한 좌석 제약, 수익 감소

- 음향 장비 세팅으로 인해 일부 좌석이 판매 불가 처리되며, 결과적으로 전체 좌석 수가 줄어들어 수익성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함

"클래식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항상 적자인 비즈니스인 걸요. 저희도 그냥 기획공연은 적자라고 생각하고 편성해요." (CA031)
"업다운이 좀 심해요. 클래식은 잘 팔려도 고만, 못 팔려도 고만. 그런데 대중공연은 예측이 더 안 돼요. 섭외할 땐 다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론 아닌 경우가 많아요." (CA031)
"방송에 자주 나온 가수인데도 정작 공연은 텅 빈 경우도 있었어요. 팬덤이 공연까지 따라오는지는 예측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CA035)
"공연할 때 음향 세팅 때문에 뒤쪽 좌석을 거의 못 써요. 마이크나 장비 때문에 사석이 많아져서 400석 이상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CA031)
"공연장 구조상 장비 설치가 필요한 무대는 세팅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좌석 활용도 제한이 많아서 기획에 부담이 생겨요." (CA034)

2) 대관 심의의 형식화와 운영의 딜레마

■ 형식적인 대관 심의 운영, 실효성에 대한 회의 존재

- 일부 공연장은 대관 심의를 실시하지만, 실제로는 수익 확보를 위해 대부분 승인되며, 내부에서도 심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함

■ 일정 채우기 중심 운영, 장르 다양성 저해

- 공연장 운영이 일정 확보와 수익 위주로 편중되면서, 실험적 기획이나 다양한 장르 수용이 어려워지는 생태계의 경직성이 나타남

"심의할 때 저는 다 빵점 줬는데, 다른 위원들이 다 통과시켰더라고요. 대관 수입을 생각하면 걸러내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어요." (CA031)
"일단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실험적인 건 넣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확실한 콘텐츠 위주로만 편성하게 돼요." (CA034)
"신청 들어오면 일단은 무조건 채워야 된다는 기류가 있어요. 일정 비워두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서요." (CA039)
"장르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도 심의 과정에서 거부당하거나, 내부에서 애초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CA035)

3) 신작 개발 및 재공연의 어려움

■ 신작·미디어아트 등 실험적 시도, 재공연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기획사와 공연장이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제작하더라도, 재공연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고 일회성 시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제작비 부담과 흥행 리스크, 실험성 지속에 제약
- 제작비가 높고 흥행 실패 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실험적 공연 콘텐츠의 지속적 기획과 확장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미디어 아트랑 결합해서 해봤는데, 사실 재공연으로 이어지긴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신기하니까 오지만 그다음은 확신이 없어요." (CA031)
"제작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1시간 공연이면 2천만 원 가까이 들고, 30분만 해도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은 꿈도 못 꿔요." (CA031)
"저희가 예전에 실험적인 무용 공연을 기획했는데, 첫 회는 반응이 좋아도 재공연은 관객이 안 들어서 결국 접었어요." (CA035)
"시도는 좋은데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계속 이어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예술적으로는 의미 있어도 운영에서는 힘들죠." (CA039)
"초연에서 끝나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공연장이든 기획사든 계속 가져갈 여력이 안 되거든요." (CA034)

다. 개선방안 및 공공지원

공연장의 창작 지속과 균형 운영을 위한 구조 개선 필요

1) 공연장 중심 레지던시 확대의 필요성

■ 실내악·독주자 중심 상주 프로그램 운영 시도

- 오케스트라 상주가 어려운 경우, 공연장은 실내악 앙상블이나 독주자 단위로 상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연장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음

■ 자체 예산 기반의 아티스트 발굴 및 협연 기획

- 공연장이 자체 예산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기획 공연 및 외부 협연과 연계하는 상주 프로그램 모델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오케스트라 상주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실내악 앙상블이나 독주자 중심으로 상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에스메, 코리안 챔버부터 시작했죠." (CA031)
"올해는 독주자 한 명만 상주로 가기로 했어요. 듀오나 앙상블은 의견 충돌도 있고, 독립적인 기획이 어려워서요." (CA031)
"우리는 상주단체가 따로 없으니까, 공연장이 주도해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있어요. 외부 협연이랑도 연결되게끔 짜고 있고요." (CA031)
"저희 지역은 상주음악가 개념이 사실상 없어요. 금호나 서울시향 같은 곳 빼고는 공연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꾸리는 데가 거의 없죠." (CA034)
"상주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창작자에게는 큰 신뢰감이 생겨요. 안정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CA039)

2) 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한 신사업 개발

■ 무인 발권·영상 장비 등 운영 효율 위한 기술 도입

- 공연장은 무인 발권 시스템과 자체 영상 장비를 도입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공연 환경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 공연장 브랜드 강화와 수익 다각화 위한 신사업 시도

- 단순 대관을 넘어 공연장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기술 기반 신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무인발권 시스템도 저희가 신사업 지표 중 하나로 잡고 있어요. 관객 편의도 있지만, 내부 운영 효율이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CA031)
"프로젝터 같은 장비도 예전엔 다 렌트했는데, 이젠 자체 보유로 전환했어요. 대관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 효과 크다고 해요." (CA031)
"콘서트홀 자체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내부에서 기획한 프로그램도 있고, 영상 콘텐츠화 같은 신사업도 시도하고 있어요." (CA034)
"기술적 기반이 없으면 공연장을 확장된 플랫폼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공연장도 미디어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CA039)
"처음엔 단순 운영 효율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자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검토 중이에요." (CA036)

3)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의 정책 조율 요구

■ 공연장 운영 재원은 다원적 구조, 수익성만으로 한계
- 공연장은 기부금, 대관료, 티켓 수익 등 다양한 재원에 의존하며, 수익성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임

■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운영 전반 고려로 확장
- 언론 보도량, SNS 팔로워 수, 신사업 시도 등 다양한 정량 지표를 통해 공연장 운영 성과를 공공재단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음

■ 예술성과 수익성 균형 반영한 공공지원 설계 필요
- 향후 공공지원은 예술적 가치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평가 기준 마련이 요구됨

"예전에는 티켓 수입이랑 대관료로 맞췄는데, 지금은 기부금 비중이 커요. 수익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여러 재원이 섞여야 유지돼요." (CA031)
"수치로는 언론 보도 건수, SNS 팔로워 수, 우리 공연장에 대한 인지도 같은 것도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과로 연결되니까요." (CA031)
"공연장 성과를 돈만으로 보긴 어려워요. 예술적으로 뭘 시도했는지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CA039)
"요즘엔 내부에서도 그냥 수입보다는 공공성, 지역성, 예술성도 같이 보자는 얘기가 많아요. 평가 방식도 좀 바뀌는 중이죠." (CA036)
"예술성과 수익성 둘 다 중요한데, 공공지원이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CA034)

[그룹 9] 프리랜서 연주가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9]은 4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18] 그룹 구성 - [그룹 9] 프리랜서 연주가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9] 프리랜서 연주가	그룹_연번_6	2024-08-27	CA015, CA016
	그룹_연번_17	2024-11-07	CA042
	그룹_연번_41	2024-12-10	CA043
	그룹_연번_49	2024-12-27	CA044

2. 참석자 명단

■ [그룹9]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5인으로 구성됨

[표 2-19] 참석자 명단 - [그룹 9] 프리랜서 연주가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9] 프리랜서 연주가	연구협의체(n=1)	-	CA-A			
	참석자(n=5)	프리랜서 연주가	CA015	여성	30대	9년
		프리랜서 연주가	CA016	남성	40대	15년
		프리랜서 연주가	CA042	남성	30대	16년
		프리랜서 연주가	CA043	남성	30대	-
		프리랜서 연주가	CA044	남성	30대	22년

3. 주요 논의 사항

■ 프리랜서 음악가의 다중 정체성과 융합 활동

- 고정된 장르와 역할을 넘나들며 자생력을 구축하는 현실과 복합 정체성에 따른 생계 전략

■ 활동 기반으로서의 대안 공간과 공연 환경

- 고전적 공연장이 아닌 성당, 소극장, 비정형 공간 중심의 활동과 그에 맞는 지원 필요성

■ 불안정한 생태계와 직업적 지속 가능성의 위기

- 공연료 편차, 낮은 인지도, 보호 장치 부재 등으로 인한 프리랜서 음악인의 구조적 불안정성

■ 기획력 중심 자생 구조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

-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현실 속에서 요구되는 기획·행정·홍보 역량과 지원 구조

■ 공공지원 체계의 한계와 장르 기반 유연화 요구

- 장르 구분 중심의 기존 공공지원의 한계를 넘어 복합적 예술가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필요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프리랜서 연주가의 활동 방식과 운영 실태 중심

1) 다중 직업자로서의 프리랜서 연주가

■ 고정된 직업 정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프리랜서 연주자의 다층적 활동 구조
- 프리랜서 연주자는 고음악, 월드뮤직, 전통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다층적 정체성으로 활동함

■ 기획과 실연을 병행하는 다중직업자 형태의 예술 활동
- 연주 외에도 공연 기획, 운영을 병행하며 실연자이자 기획자로서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단일 장르 기반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따른 복합 활동 양상
- 특정 장르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다양한 음악 형식과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많음

"저는 원래 클래식 기타 전공이었는데, 고음악에 관심이 생기면서 바로크 기타, 테오르보로 자연스럽게 옮겨왔어요. 지금은 고음악 외에도 국악기랑 같이 협업하거나, 컨템포러리 댄스랑 같이 하는 일도 있어요. 그냥 어떤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음악적인 상호작용을 계속 찾고 있어요." (CA015)

"요즘은 연주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제가 직접 팀을 꾸리고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게 돼요. 실제로 공간 대관부터 포스터 디자인까지 직접 다 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획자 역할도 하게 되더라고요. 연주는 일종의 결과고, 그 앞단의 일들을 안 하면 무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CA044)

"저는 실내악 팀도 하고,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프로젝트로 공연 기획도 해요. 그냥 하나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무대는 꾸준히 만들고 싶은데,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까 여러 방향으로 뻗어가야만 유지가 되죠." (CA043)

"솔직히 고전 악기 하나만으론 생계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주뿐 아니라 레슨도 하고, 국악이나 현대음악 쪽이랑 콜라보도 자주 해요. 그냥 음악인으로서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느낌이에요." (CA016)

"음악은 물론 좋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공 하나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악기랑 같이 연주하거나, 무용 공연이랑 결합해서 실험적인 형태로 무대를 만들기도 하고요. 장르를 넘나드는 게 이제는 거의 생존 전략처럼 되어버린 거죠." (CA042)

2) 대안 공간 중심의 활동 환경 조성

■ 정형 공연장이 아닌 성당·교회·복합문화공간 중심의 공연 활동 확대
- 프리랜서 연주자들은 성당, 교회, 대안 공간 등에서 주로 활동하며 고정 공연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음

■ 공간 제약을 넘는 기획력과 네트워크 기반의 자생적 공연 환경 조성
- 연주자들이 직접 공간을 발굴하고 기획해 활동 무대를 마련하며, 관객과의 거리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함

"저희는 보통 성당이나 소극장, 그리고 좀 특이한 공간들 위주로 공연을 해요. 아무래도 고악기 특성상 큰 공연장에서 하면 소리가 퍼지거나 묻혀버리기도 하고, 관객하고 너무 멀어지는 느낌도 있어서요. 오히려 작고 집중도 있는 공간이 더 맞아요." (CA015)
"대안 공간을 찾는 건 사실 필수예요. 대형 공연장은 비용도 크고 저희 같은 연주자한테는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나 복합문화공간, 때로는 서점 같은 데서도 직접 기획하고 연주해요. 저희가 무대를 직접 만들어야 하니까요." (CA044)
"테오르보나 바소 콘티노 같은 악기는 전통 공연장보다 오히려 작은 공간에서 더 어울려요. 음향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안에서 관객하고 시선 마주치면서 연주하는 그 밀도가 좋아요. 그래서 성당이나 갤러리에서 많이 해요." (CA016)
"홍보도 저희가 직접 하고, 공간 대관도 스스로 섭외해서 기획까지 해요. 그냥 연주만 하는 시대는 지났고, 작은 공간들을 발굴하면서 우리 무대는 우리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CA043)
"처음에는 이런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일반 공연장보다 반응도 더 좋고 관객들도 가까이서 느껴진대요. 그게 또 자주 찾게 되는 이유죠." (CA042)

3) 자기 기획 중심의 활동 구조 정착

■ 외부 기획 의존 대신 개인 주도의 연주 기획 및 운영 구조 정착
- 프리랜서 연주자들은 대부분 연주 기회를 스스로 기획하고 팀 구성, 섭외, 홍보까지 직접 수행함

■ 생계유지와 예술 활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 역량의 중요성
- 기획력과 실행력이 연주 성과뿐 아니라 지속적 활동 가능성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함

"공연을 누가 짜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해요.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팀을 꾸리고, 장소를 잡고, 홍보물도 만들고요. 기획을 안 하면 무대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CA044)
"외부에서 섭외 들어오는 건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제가 직접 공연을 만들어요. 연주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설계하는 거죠. 기획력이 없으면 아예 활동이 끊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CA042)
"요즘은 다 자기가 기획자가 되는 시대죠. 연주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객을 불러오고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런 것까지 다 잘해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CA015)
"공공 지원도 사실 기획서 쓰는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못 하면 기회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연주력과 기획력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CA043)
"음악은 무대가 있을 때만 살아 있는데, 그 무대를 만드는 걸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연주자이면서 동시에 제작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CA016)

나. 생태계 이슈

프리랜서 연주가 생태계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인식 부족 문제

1)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의 부재

■ 공연 횟수와 개런티에 따라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현실

- 정기 수입 없이 공연마다 조건이 달라 생계가 불안정하며, 장르에 따라 편차도 큼

■ 고음악·고전악기 분야의 협소한 무대와 낮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

- 일부 특수 분야는 무대 자체가 적어 고정 수입원이 부족하고 병행 직업을 갖는 사례도 많음

"공연이 있어야 수입이 생기는데, 그것도 시즌마다 다르고 공연마다 개런티도 천차만별이에요.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니까 늘 불안정하죠." (CA043)
"솔직히 고음악은 무대가 적어요.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연주 기회도 줄고, 그만큼 수입도 적고. 그래서 레슨도 병행하고, 다른 분야랑 협업도 하면서 버텨요." (CA015)
"정기적으로 고정된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언제나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달은 두세 번 하고 끝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CA042)
"전통 악기나 고전 악기 쪽은 특히 더 그래요. 수요가 워낙 적다 보니까,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CA016)
"기획 공연이 아니면 연주 기회 자체가 귀한 편이고, 있다고 해도 출연료가 높진 않아요. 특히 마이너한 악기일수록 더 그렇죠." (CA044)

2) 전문성 대비 인지도의 낮음으로 인한 기회 제한

■ 희소한 전문성을 갖춘 연주자들이 대중 인지도 부족으로 기회에 제약

- 비주류 악기나 특수 장르 연주자들이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공연 기회와 보상에서 불이익을 겪음

■ 장르 특화가 오히려 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 발생

- 수요가 협소한 악기나 장르의 경우, 전문성 자체가 활동 제약 요인이 되는 시장 구조가 문제로 지적됨

"테오르보 같은 악기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아무리 잘 쳐도 사람들이 뭔 악기인지도 모르니까, 무대 기회 자체가 잘 안 생겨요. 그럴 때마다 좀 허무하죠." (CA015)
"저는 사실 국내에 몇 안 되는 바소 콘티노 연주자예요. 그런데 이런 악기들은 아무리 잘해도 대중한테 닿기가 어려워요.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CA016)
"희귀 악기라는 건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수요도 한정돼 있어서요. 레퍼토리도 적고, 초청받을 기회도 적어요. 그러니 당연히 보상도 낮고요." (CA044)
"전문성이 높다고 해도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대는 줄고, 인지도는 안 올라가고, 좀 악순환 같아요." (CA042)
"저희 팀이 다 고음악 전공자인데, 진짜 잘해도 들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결국 장르 자체가 주류가 아니니까 기회도 줄어드는 거죠." (CA043)

3) 개인 단위 활동에 따른 행정·사회적 보호의 부재

■ 계약·정산 등 전 과정이 개인 단위로 이뤄지는 구조적 특성
- 단체 소속 없이 개인이 전 과정을 수행하며, 행정적·법적 보호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구조임

■ 공연 취소 등 피해에 대한 보장 체계의 부재와 제도 개선 필요
- 취소·연기로 인한 손해가 보장되지 않으며,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가 미흡함

"공연 하나 하려면 계약서부터 정산까지 제가 다 직접 해요.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다 혼자 처리해야 하죠. 잘못되면 책임도 혼자 져야 하고요." (CA043)
"취소되면 그냥 없는 셈 쳐야 해요.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공연이 없어져도 그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프리랜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무방비예요." (CA042)
"저는 한 번은 공연 하루 전에 취소 통보받은 적 있어요. 대관부터 포스터까지 다 끝냈는데요. 손해는 온전히 저 혼자 떠안아야 했고, 어디 말할 데도 없더라고요." (CA044)
"계약서도 구두로 하는 경우가 아직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특히 1인 연주자는 더 취약해요." (CA015)
"큰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연주자들은 그래도 보호 장치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진짜 무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CA016)

다. 개선방안 및 공공지원

프리랜서 연주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제도 설계 필요

1) 소규모 공간 중심 활동을 고려한 맞춤형 공연 지원 필요

■ 대형 공연장이 아닌 소규모·대안 공간 중심의 활동 현실

- 프리랜서 연주자들은 성당, 소극장 등에서 주로 활동하며, 대형 공연장 중심의 지원과 괴리가 큼

■ 공연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필요

- 음향, 역사성 등 공간 특수성을 반영한 장비, 홍보, 섭외 등 실질적 맞춤 지원이 요구됨

"저희는 대형 공연장보다 성당이나 작은 문화공간에서 더 자주 연주해요. 그런데 지원사업은 대부분 대형 공연장 중심이라 저희한테는 맞지 않더라고요." (CA015)
"작은 공간은 음향 조건이 민감한데, 장비나 셋업 지원은 전혀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해결해야 하니까 늘 한계가 있어요." (CA044)
"연주하는 공간이 독특한 경우가 많은데, 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결국 자기 돈으로 장비 마련하고 조명 세팅하고 다 해야 돼요." (CA042)
"홍보나 관객 유치도 저희 몫이에요. 포스터, SNS, 홍보문안까지 직접 만들고, 섭외도 스스로 하고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CA043)
"저희는 장소가 독특해서 청중들이 더 집중해주기도 하는데, 정작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거의 없어요. 현실과 정책 사이 괴리가 커요." (CA016)

2) 연주자 개별 기획력 향상을 위한 실질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필요

■ 기획력과 실행력이 생계와 직결되는 프리랜서 활동 구조

- 연주자 스스로 기획, 구성, 운영을 담당해야 하며 기획 역량이 생존과 직결됨

■ 창작비 중심 지원에서 실무 역량 강화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 실무 교육과 멘토링 등 실질적 지원이 개인에게 직접 닿도록 설계되어야 함

"기획을 못 하면 무대가 없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아이디어 내고 팀 꾸리고 공간 잡는 것까지 다 제가 해야 하거든요. 그게 생계랑 바로 연결돼요." (CA044)
"창작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기획서 쓰는 법, 예산 짜는 법 같은 실무예요. 그걸 잘 몰라서 지원 기회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CA042)
"연주는 배웠지만, 기획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공연을 만들어본 적도 없이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고, 현장에선 그게 제일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CA015)
"저희 같은 연주자한테는 실무 교육이 정말 절실해요. 멘토링이나 실제 사례 기반으로 운영·홍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CA043)
"혼자 공연 만들면서 배우긴 했지만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걸 체계적으로 가르쳐줬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준비했을 것 같아요." (CA016)

3) 복합적 직업 정체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의 유연화 필요

■ 장르와 형식을 넘나드는 프리랜서 연주자의 복합적 정체성
- 고음악, 전통 음악,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융합형 활동이 일반적임

■ 경직된 공공지원 체계와 복합 정체성 간의 부조화
- 장르 구분이 엄격한 기존 지원 체계가 복합적 활동을 수행하는 연주자와 맞지 않음

"저는 고음악도 하고, 국악기랑 협업도 하고, 때로는 현대음악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요. 그냥 요즘 연주자들은 하나만 고집해서는 활동하기 어려워요." (CA015)
"공공지원 사업은 대부분 클래식, 국악, 이렇게 장르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처럼 이것저것 융합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아요." (CA042)
"장르 구분 없이 음악적인 흐름으로 작업을 하는데, 지원 신청할 때는 '당신은 무슨 분야냐'고 자꾸 물어봐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기준 같아요." (CA044)
"프로젝트마다 결이 다르니까 정체성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원 체계는 그런 유연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늘 고민이 생겨요." (CA043)
"클래식이면서도 전통 요소를 접목하거나, 무용이랑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받아줄만한 지원 분류가 잘 없어요. 선택지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CA016)

[그룹 10] 민간단체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10]은 15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20] 그룹 구성 - [그룹 10] 민간단체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10] 민간단체	그룹_연번_1	2024-08-20	CA045
	그룹_연번_5	2024-08-27	CA046
	그룹_연번_7	2024-08-28	CA047
	그룹_연번_11	2024-09-12	CA048
	그룹_연번_13	2024-10-02	CA031
	그룹_연번_14	2024-10-18	CA049
	그룹_연번_16	2024-11-07	CA050
	그룹_연번_21	2024-11-14	CA051
	그룹_연번_25	2024-11-19	CA052
	그룹_연번_27	2024-11-20	CA053
	그룹_연번_33	2024-11-23	CA054
	그룹_연번_39	2024-12-03	CA006
	그룹_연번_44	2024-12-19	CA055
	그룹_연번_45	2024-12-20	CA056
	그룹_연번_50	2024-12-30	CA057

2. 참석자 명단

■ [그룹10]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15인으로 구성됨

[표 2-21] 참석자 명단 - [그룹 10] 민간단체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10] 민간단체	연구협의체(n=1)	-	CA-A			
	참석자(n=15)	민간단체	CA045	여성	40대	9년
		민간단체	CA046	여성	50대	24년
		민간단체	CA047	남성	40대	12년
		민간단체	CA048	남성	-	13년
		민간단체	CA031	여성	40대	15년
		민간단체	CA049	남성	50대	25년
		민간단체	CA050	여성	50대	28년
		민간단체	CA051	여성	50대	30년
		민간단체	CA052	여성	40대	14년
		민간단체	CA053	여성	50대	20년
		민간단체	CA054	남성	40대	11년
		민간단체	CA006	여성	30대	12년
		민간단체	CA055	여성	40대	15년
		민간단체	CA056	여성	50대	28년
		민간단체	CA057	여성	30대	10년

3. 주요 논의 사항

■ 민간 예술단체의 창작과 운영 방식
- 상설 조직 없이 유연하게 운영되는 프로젝트 중심 구조의 특성과 자율적 기획 방식

■ 예술가의 경력 경로와 생계 기반
- 정규 고용의 부재로 인한 청년·중견 예술가의 생존과 진입, 지속의 어려움

■ 예술단체의 자생력과 공동체 운영
- 상근 인력 없이 대표·단원이 실무를 병행하는 구조와 내부적 자율성의 공존

■ 민간단체의 관객 기반과 외부 연계
- 고정 후원층과 충성도 높은 관객의 존재, 홍보·확산의 어려움 및 사회적 연결 시도

■ 공공지원 제도와 민간단체의 괴리
- 정규직·거점 중심의 기존 제도가 기획형 민간단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공연 중심 단체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1) 기획·운영 전반을 연주자가 직접 수행하는 구조

■ 민간 예술단체의 연주자 대표 운영 구조 확산

- 연주자가 단체 대표를 겸하며 기획, 운영, 연주까지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예술적 방향과 실행력이 일치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고정직 인력 부재로 인한 역할 집중과 과중

- 상근 행정 인력이 없는 구조로 인해 단체 운영 전반의 부담이 대표에게 집중됨. 예술과 행정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과업이 상시 발생함

■ 예술적 자율성과 조직 안정성 간의 구조적 긴장

- 기획 주체가 예술가인 만큼 자율성은 높지만, 행정 전문성 부족과 업무 지속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음. 구조적 이중성이 공존하는 상황임

"직원도 뽑아보고, 1년 내내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몇 달 빼고는 사무국에서 할 일이 없어. 비전이 없다. [...] 사무국 직원으로 뽑아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영앤잎섬이 하던 일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CA056)
"저희도 사실은 탄력근무제예요. 그래서 저는 재택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 이게 그것도 힘들고. 증빙 정리하고. 알겠지만 시간도 없고 인력이 들어가니까 다 돈인 거예요. 그걸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건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CA056)
"지금 상근직 직원은 2명입니다. 저는 이제 비상근으로 분류되어 있고. 민간 단체는 또 대표가 상근직으로 고정 급여가 발생되면 안 되는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CA052)
"외부 출연을 열심히 해서, 저랑 같이 일하는 매니저들이 사무국에서 열심히 영업을 해서 공연을 따내고 [...] 교육사업도 같이 해가면서 공연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CA048)
"전문 인력이 부재한 거죠. 없죠. 근데 이런 구조 자체가 오히려 더 전문 인력이 필요 없는 구조로 [...] 공연장. 그게 제일 답답한 거야." (CA047)

2) 프로젝트 단위 예산 운용 및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 공연 수익만으로는 유지 어려운 민간단체의 재정 구조

- 정기 공연 외에 초청 공연, 기업행사, 해외 투어 등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공연 자체의 수익성은 낮은 편임

■ 매 공연마다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운영 현실

- 단체들은 공연을 준비할 때마다 펀딩, 기업 후원 등 외부 재원을 별도로 조달해야 함. 예산 안정성이 부

족하여 운영이 불안정함

■ 출연료와 후원 중심의 구조, 자생력 확보의 과제

- 공연 수익보다 출연료와 후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자생적 수익 모델이 부재하여 구조적 한계를 지님

"저희 단체만 미루어 봤을 때 결국은 예산이죠. 예산 확보. 특히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매 공연이 거의 미션이에요. 매 연주마다 예산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CA052)
"공연 수입은 가장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기업 공연들, 기획 사업, 기획 공연들… 다 합쳐서 수익 구조를 짜고 있어요." (CA053)
"민간 기획사니까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월급도 주고 렌탈비도 나가고 하니까 [...] 기본적으로 수익 창출 목적 없이 공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CA046)
"초대 음악 감독이신 ○○○ 선생님을 필두로 기업에서 협찬을 많이 받고 수익을 창출해서 단원들 급여를 주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했었어요." (CA048)
"정말 ○○○○홀 비싸잖아요. 지원금 없으면 정말 힘든데 [...] 예전에는 공연을 하는 족족 마이너스를 끌어안았어야 됐는데 지금은 예산 공연 예산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CA053)

3) 프로그램 정체성과 편성 다양화에 대한 고유 전략 보유

■ 고유한 기획 철학과 장기 전략을 보유한 민간단체 존재

- 미발굴 고전·현대 음악, 교육 협연 등 차별화된 기획 방향을 통해 단체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

■ 일관된 기획이 관객 충성도 형성에 기여

- 장기적 기획 운영은 고정 관객층의 신뢰를 형성하고, 반복 관람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됨

"저희가 보통은 한 4개의 곡을 하는데 한 3개 1개 이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 보통의 저희가 알고 있는 클래식이라면 한 개는 좀 미래 세대 음악, 20세기 고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CA052)
"정체성? 사실 제 생각에는 세종이 이런, 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이렇게 솔로이스츠로 이렇게 시작한 건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되게 끈끈한 그런 것들이 연주할 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CA057)
"○○○ 선생님께서 레어 아이템, 고전 클래식은 클래식 [...] 고전이 줄 수 있는 미학적 아름다움에 늘 깊이 빠져 계신 것 같고, 그것을 젊은 세대와 어우러지게 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CA052)
"아티스트의 중장기 전략 수립, 브리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각해서 공연 기획하고 앨범 제작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CA046)
"국내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친구 해외 행보를 보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보통 콩쿨 입상자처럼 가고 있으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그게 딱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정도를 가는 친구라고 봐요." (CA046)

4) 고정 조직 없이 유동적으로 편성되는 연주 구조

■ 소규모 상근 인력 운영, 공연 단위 중심의 구조

- 민간단체 대부분이 상근 인력 1~2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 단위로 운영되는 구조가 일반적임

■ 유동적 단원 구성과 건별 수당 지급 방식

- 단원은 고정되지 않고 매 공연마다 가능한 인원으로 편성되며, 수당도 건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됨

■ 자율성과 공동체 중심의 운영 문화 형성

- 조직 내 위계보다는 자율성과 상호 협력에 기반한 공동체 운영 방식을 지향함

"지금은 4명이 줄고 36명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 4대보험은 안 되고요. 2년 정도는 해드렸었는데, 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처럼 연락이 와가지고." (CA048)

"저희 단체는 왜 118명의 정단원이냐면 이분들이 다 직업이 있으세요. [...] 스케줄이 있으시면 그걸 다 피해서 가능한 분들로 어레인지를 하거든요. 매 명단을 짜요." (CA052)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인 거죠? 상주가 아니라. [...] 단원들이 계속 바뀝니다. 악장은 그래도 계속, 웨인이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CA047)

"시니어들은 오래됐고, 주니어들은 1~2년 차들이 많아요. [...] 주니어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게 좀 가슴이 아파요." (CA053)

"이 단체는 약간 패밀리처럼 해서, 나이가 들면 명예 단원으로 전환돼요. [...] 유럽의 모던 음악 단체처럼 함께 늙어가는 구조를 추구하신 거죠." (CA006)

나. 생태계 이슈

인력 구조의 비정형성과 후속 세대 진입의 단절

1) 상근 인력의 부재와 조직 운영 안정성의 취약함

■ 고정 인력 부재로 역할 분산과 과중 발생

- 대표자를 제외한 상근 인력이 거의 없으며, 운영·기획·홍보 등 주요 업무가 분산되어 수행됨

■ 예산 제약에 따른 구조적 운영 한계

- 인력 부족은 재정적 제약에서 비롯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원인임

"지금 상근직 직원은 2명입니다. 저는 이제 비상근으로 분류되어 있고. 민간 단체는 또 대표가 상근직으로 고정 급여가 발생되면 안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CA052)
"사무국에서 영업을 해서 공연을 따내고, 만들어내고, [...] 교육 사업도 같이 해가면서 공연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 티켓도 팔고, 단원들 급여도 주고 해서 연간으로 긴 호흡으로." (CA048)
"유튜브로 한 건데 지역 같은 경우에 관공서에 예산이 많아도 유튜브 홍보 예산 같은 건 책정을 잘 안 해주죠. 왜냐하면 이거 누가 할 거야? 그러면 또 할 사람이 없잖아요." (CA047)
"결국에는 저희는 기부에다가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 [...] 음악회 초청하고, 후원하셔라, 해외 사례 다 끌고 와서 보여드리고 [...]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죠." (CA047)

2) 정기 고용 불가로 인한 청년 인력의 유입 저조

■ 청년 인력 유입의 한계, 단기 참여에 그침

- 고정급 지급이 어려워 청년 인력을 상근 인턴이나 단기 근로 형태로만 유치할 수 있음

■ 인력 순환 구조로 인한 지속성·전문성 부족

- 인력 전환이 반복되며 조직의 운영 지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지금은 연수단원 1명이 들어 있고, 공공예술 쪽으로도 한 명 있고. [...] 그런 상태인데 조직을 조금 더 규모 있게 가져가려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CA050)
"기획사에 올 생각을 잘 안 해요. 브랜드를 보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나 대체 인력도 많고 [...] 이력서가 잘 안 들어와요." (CA051)
"예전에야 스펙 좋은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기획사 자체로 오려는 사람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정직원이 아닌 경우가 많고 불안정하니까요." (CA051)

3) 음악 생태계 내 세대 간 단절과 중견 인력 소외

■ 청년·스타 중심 생태계, 중견 연주자 설 자리 부족
- 청년과 스타급 예술가 중심의 무대 편중으로, 중견 연주자의 활동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 중견층 예술성에 주목하는 일부 단체의 시도
- 일부 민간단체는 중견 연주자의 깊이를 존중하며 무대 기회를 마련하려 하지만 생태계 전반의 뒷받침은 부족함

"중견은 이제 선생님께서 중견 연주자들은 유럽 본고장에 워낙 선생님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중견층은 선생님이 국내에 주목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음악계가 너무 양분화되어 있어서 이 중간층이 무대에 설 데가 없는데, 선생님은 특히 이게 너무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하세요." (CA052)
"그래서 그 간극이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시고, 선생님은 오히려 중간층 국내 연주자들의 물 익은 음악적인 것들을 청중에게 소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CA052)
"주니어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게 좀 가슴이 아파요. [...] 순수 예술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 끈이 일찍 끊어지는 것 같아요. 정신적 충만함, 몸의 편안함, 수입 셋 중 하나라도 있어야 버티는데, 셋 다 위태위태한 일이죠." (CA053)
"아직은 [...] 뉴페이스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들의 공연을 벗어나면 뉴페이스에 대한 체감도가 없어요. 전체 클래식 시장이 넓어지는 데까지는 아직 체감이 없고, 중간 세대는 설 자리가 적어요." (CA046)

4) 공공지원 사업 기준과 민간단체 설정의 괴리

■ 공공지원 기준이 민간단체 운영 현실과 불일치
- 정규직 고용, 다회성 사업 등 중심 기준이 기획형 민간단체의 실정과 맞지 않아 진입이 어려움

■ 단발성 공연 중심 단체의 구조적 배제 문제
- 기존 공모 구조가 상설 단체 위주로 설계되어, 단발성 중심의 민간단체는 배제되는 차별을 겪고 있음

"공공기관이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조금 더 트렌드에 예민하게 오픈되어 있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민간에서는 훨씬 더 유연한데, 공공은 정해진 기준이 너무 딱딱해요." (CA046)
"기획은 항상 안 주시더라고요. 떨어져서. 인력지원사업은 거의 다 받지만 기획 가지고는 안 돼요. 민간 공연장은 대공연장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공익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쉽지 않아요." (CA031)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목적이 분명하고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해주는 건데, 보통 지원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조금씩 혜택을 주는 구조죠. 그래서 오히려 자생력 있는 단체는 지원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CA046)
"공공기관 사업에 들어갔는데 서류도 너무 많고 영수증 처리도 많고, 1억짜리 사업에서 7%, 8% 얻으려고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실제로는 그 예산 처리 때문에 오히려 안 하게 돼요." (CA049)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민간단체 운영 실태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필요

1) 정기 공연이 아닌 기획 중심 단체 대상의 맞춤형 공모 신설 필요

■ 연간·시설 중심 공모 조건이 민간단체와 괴리
- 기존 공모는 연속성과 공간 기반을 전제로 하여, 기획 중심 민간단체의 현실과 맞지 않음

■ 단발성 기획 단체를 위한 별도 공모 마련 필요
- 유동적 편성, 단기 운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모 제도 도입이 요구됨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목적이 분명하고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해주는 건데, 보통 지원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조금씩 혜택을 주는 구조죠. 그래서 오히려 자생력 있는 단체는 지원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CA046)
"기획은 항상 안 주시더라고요. 떨어져서. 인력지원사업은 거의 다 받지만 기획 가지고는 안 돼요. 민간 공연장은 대공연장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공익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쉽지 않아요." (CA031)
"지원 사업에 들어갔는데 서류도 너무 많고 영수증 처리도 많고, 1억짜리 사업에서 7%, 8% 얻으려고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실제로는 그 예산 처리 때문에 오히려 안 하게 돼요." (CA049)
"옛날에는 전문 인력이라 그래가지고 시니어도 일부 지원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초기 인턴 정도밖에 안 돼요. 코로나 때는 프로젝트별로 인력 지원이 있어서 좋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고, 지금은 연수단원 정도만 남았어요." (CA050)

2) 단체 전속 인력 고용 조건 완화 및 유연한 고용 형태 인정 필요

■ 비정규 고용 구조를 반영한 공공지원 기준 필요
-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민간단체 특성상 프리랜서·비상근 인력도 지원 인정 범주에 포함돼야 함

■ 유연한 고용 정이 인력 확보와 청년 참여에 기여
- 고용 기준 완화는 운영 인력 확보와 청년 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정규직 채용 조건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민간 단체는 프리랜서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고용 구조는 거의 인정이 안 되니까 아예 공모 자체가 어려워요." (CA046)
"공공지원에서도 좀 더 현실적인 고용 방식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근 못 두는 게 현실인데, 그걸 자꾸 조건으로 넣으면 애초에 문턱이 너무 높죠." (CA050)
"저희 단체는 공연마다 사람을 섭외해서 꾸리거든요. 정단원이라는 개념보다 파트너처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유연한 구조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CA057)

3) 중견 연주자 무대 기회 제공을 위한 별도 사업 필요

■ 신진·스타 중심의 공공지원 편중 문제

- 현재 공공지원은 신진 예술가나 유명 아티스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 중견 예술가를 위한 무대 기회 확대 필요

- 중견 연주자의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연계 초청 사업 및 공동기획 지원이 요구됨

"음악계가 너무 양분화되어 있어서 이 중간층이 어디 무대에 설 데가 없는데, 선생님은 특히 이게 너무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하세요. [...] 선생님은 오히려 중간층 국내 연주자들의 물 익은 음악적인 것들을 청중에게 소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CA052)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는 딱 ○○○, ○○○ ○○○, ○○○... 이 정도로 다 쏠려 있어요. [...] 스타 마케팅에 집중돼 있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CA054)

"저처럼 영화티스트들이 ○○○,○○○ 말고 또 목 멜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걸 바라는 입장에서는, 서울시향 같은 곳이 그런 아티스트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무대 기회를 파격적으로." (CA051)

[그룹 11] 지역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11]은 11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22] 그룹 구성 - [그룹 11] 지역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11] 지역	그룹_연번_29	2024-11-20	CA025,CA026
	그룹_연번_30	2024-11-21	CA027
	그룹_연번_31	2024-11-21	CA035
	그룹_연번_34	2024-11-26	CA036
	그룹_연번_35	2024-11-27	CA037
	그룹_연번_36	2024-11-28	CA038
	그룹_연번_37	2024-11-28	CA029
	그룹_연번_38	2024-11-29	CA039
	그룹_연번_42	2024-12-17	CA058
	그룹_연번_46	2024-12-20	CA059
	그룹_연번_48	2024-12-27	CA060,CA061

2. 참석자 명단

■ [그룹11]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13인으로 구성됨

[표 2-23] 참석자 명단 - [그룹 11] 지역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11] 지역	연구협의체(n=1)	-	CA-A			
	참석자(n=13)	지역	CA025	남성	40대	20년
		지역	CA026	남성	40대	14년
		지역	CA027	남성	50대	12년
		지역	CA035	여성	40대	24년
		지역	CA036	남성	40대	4년
		지역	CA037	여성	40대	8년
		지역	CA038	남성	50대	30년
		지역	CA029	남성	50대	30년
		지역	CA039	여성	50대	31년
		지역	CA058	여성	40대	21년
		지역	CA059	여성	40대	17년
		지역	CA060	남성	50대	-
		지역	CA061	여성	50대	15년

3. 주요 논의 사항

■ 지역 공연장과 문화 인프라 운영

- 지역 공연장은 단순 공연 공간을 넘어 전시, 교육 등 복합문화기능 수행. 관객 성향과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운영이 이뤄짐

■ 지역 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

- 지역 예술단체는 수도권 중심 구조 속에서 인력, 콘텐츠 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예술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가짐

■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및 상주단체 운영

- 통영, 대관령 등 지역 음악제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비전 기획이 이뤄지고 있으며, 운영 자율성과 기획력 보장이 중요함

■ 지역 관객 확대와 교육 연계의 필요성

- 교육 프로그램, 프린지 콘텐츠 등으로 지역민 참여 유도 필요. 문화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이 요구됨

■ 정책적 정비와 행정 구조 개선

- 지역 단체와 공연장 간 역할 재정립, 이중구조 해소,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한 행정·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지역 기반 예술기관의 운영 구조 및 방향성 정립

1) 지역별 예술 기반 불균형 및 수요 편차

■ 지역 간 문화 인프라 불균형, 도시별 예술 환경 상이

- 대구, 부산, 통영 등은 문화시설, 관객 수요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도시 특성과 인구 구조에 따라 예술 기반 여건이 달라짐

■ 노후 시설과 거리 분산, 부산의 관객 기반 형성 한계

- 부산은 공연장 수는 많지만 시설이 낡았고, 지역 간 거리가 멀어 관객의 집중도가 낮아 저변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축제를 통한 문화기반 형성, 통영의 사례

- 통영은 전공 인프라 없이도 국제음악제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를 이끌고 있으며, 축제를 통한 운영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부산은 공연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관객들이 그리 많이 모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간 거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수도권하고는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CA026)

"저희는 통영에 음대도 없고, 음악 관련 기관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윤이상이라는 인물 하나를 중심으로 국제음악제를 열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큰 시스템 없이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CA058)

"부산은 시내에도 공연장이 꽤 여러 군데 있고, 규모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연장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시설도 오래된 곳이 많아서 '어디를 가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관객도 흩어지게 되고요." (CA037)

"대구는 아무래도 중산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 공연장 주변에 몰려 있어서 그런지 클래식 공연이 잘 되는 편이에요. 특정 관객층이 명확하다 보니까 기획할 때도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서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CA025)

"지역마다 문화 수요가 정말 달라요. 같은 클래식 공연이어도 반응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도시는 특정 장르가 아예 안 먹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할 때 항상 도시별 특성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CA036)

2) 정체성 확보를 위한 축제 및 음악제의 지역화 전략

■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예술제 기획, 콘텐츠 차별성 확보
- 통영국제음악제와 대관령음악제는 지역의 자연, 철학, 인물을 주제로 한 콘텐츠 구성으로 고유한 예술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음

■ 현대음악을 포괄하는 통영국제음악제의 방향 전환
- 통영은 윤이상을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동시대 음악 전반을 아우르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예술적 외연을 확장하고 있음

■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대관령 음악제의 주제형 기획
- 대관령 음악제는 환경, 존엄, 타문화 수용 등 주제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도모함

"저희는 통영국제음악제가 윤이상 선생님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분을 넘어서 더 다양한 음악과 아티스트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감독님도 현대음악제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말자고 하셨고요. 이제는 아예 '세상의 모든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CA058)
"대관령음악제는 제가 맡은 이후부터는 매해 테마를 확실히 정해서 가고 있어요. 자연, 철학, 환경, 이런 걸 주제로 해서 클래식 음악이 단순히 예쁘게 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연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CA060)
"통영은 처음에는 윤이상이라는 이름 덕분에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정체성에서 좀 더 확장된 형태로 가고 있어요. 단순히 윤이상 음악을 하는 데서 벗어나서 다양한 장르와 접근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CA058)
"우리가 음악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대관령음악제는 공연 하나하나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기획해요. 청중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그런 걸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CA061)

3) 지역 관객의 성향에 기반한 프로그램 구성

■ 지역 공연장의 관객 특성 분석 기반 기획 전략
- 대구, 부산 등 공연장은 연령, 성비, 문화수준 등 지역 관객의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기획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수성아트피아의 클래식 중심 편성 및 여성 관객 비중
- 수성아트피아는 공연의 70% 이상이 클래식이며, 주요 관객층은 여성으로, 공연 내용에 따라 연령 분포에도 차이가 있음

■ 지역 수요 기반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필요성
- 지역 공연장은 획일적 콘텐츠보다는 관객층 특성을 반영한 기획이 중요하며, 지역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저희 수성아트피아는 아무래도 클래식 공연이 제일 많아요. 전체 공연의 70% 이상이 클래식이고, 관객들도 대부분 여성분들이에요. 공연 성격에 따라 연령대도 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기획을 조정할 때가 많아요." (CA025)

"대구는 중산층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공연 관람 문화가 좀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특히 클래식 쪽이 강하고, 관객 성향이 비교적 뚜렷해서 기획할 때 기준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CA025)

"부산 쪽은 조금 달라요. 공연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별 관객층이 다 다르고, 공연 취향도 다양해요. 그래서 한 공연장이 어떤 특정 장르만 하기보다는 지역 수요에 따라 다양한 장르를 병행하려고 해요." (CA037)

"공연장마다 관객 특성이 너무 달라서, 그냥 서울에서 잘 된 공연이라고 그대로 가져오면 반응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지역 맞춤형 기획이 없으면 관객 유입도 어렵고 지속성도 떨어지더라고요." (CA036)

나. 생태계 이슈

지역 단체와 예술가가 겪는 구조적 한계 및 지속성 문제

1) 지역 예술단체의 예술적 지속성 확보 한계

■ 지역 예술 기획의 지속성 확보에 있어 행정·재정의 한계
- 지역 공연장과 단체는 국제 수준의 공연 유치나 장기 기획 추진에서 예산, 인력, 제도 등 행정·재정적 제약에 직면함

■ 상주단체 중심의 자생적 운영 모델 시도
- 통영은 자체 상주단체를 중심으로 외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운영 구조를 모색하며 지속 가능성을 실험 중임

■ 지역 정치·행정과 예술단체 간 갈등 요소 존재
- 교향악단 설립 요구 등에서 나타나듯, 지역 예술 정책은 정치·행정 논리와 충돌하며 단체의 자율성과 방향성에 영향을 미침

"저희가 상주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외부 예산 없이도 어떻게든 자립적으로 굴러가게 만들고 싶어서예요. 처음부터 시향 같은 걸 만들자는 요구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 싸움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CA058)

"지역에서 뭔가 제대로 된 장기 기획을 하려면, 행정이랑 예산 구조가 좀 더 유연해야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매년 단기적으로 예산을 따내야 하고, 인력도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요." (CA025)

"통영은 사실 음대도 없고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상주단체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기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에다 지원 요청도 안 하니까 행정 간섭에서 좀 자유롭기도 하고요." (CA058)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교향악단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지역 주민들이 시향 생기면 좋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제랑 수준이나 방향이 전혀 맞지 않아요. 갈등이 계속 반복됐어요." (CA058)

2) 지역 중심 프로그램 기획 시 발생하는 공공성·예술성 사이의 균형 관련

■ 예술성과 상업성의 긴장 속에서 고품격 콘텐츠 기획
- 통영국제음악제는 클래식 중심의 고품격 공연을 통해 예술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지원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 프린지 프로그램 병행으로 대중적 접근 시도
- 지역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축제 외곽에서 프린지 형식의 열린 공연과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공공성, 예술성, 대중성 간 균형 추구의 어려움
- 지역 예술제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며, 각 축 사이에서 조정과 기획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고민이 따름

"저희는 클래식 공연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축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동시에 지역 축제이기도 하니까 공공의 책임도 있고요." (CA058)
"프린지 프로그램은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장치예요. 본 공연은 예술성을 중심으로 가고, 프린지는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병행하고 있어요." (CA058)
"사실 예술성, 대중성, 공공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하나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획 단계부터 균형을 맞추는 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요." (CA058)
"음악제를 통해 정말 예술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지역 주민이 외면하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책적 요구도 있고, 내부적인 방향성도 있고요." (CA058)

3) 수도권과의 격차에 따른 인력 및 콘텐츠 유입 문제

■ 수도권 예술인 의존, 지역 기획력 축소 문제
-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 단체들은 프로그램 기획과 인력 수급에서 서울 등 수도권 중심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외부 인력 초빙 중심 운영, 콘텐츠 자생력 저하
- 강사와 연주자 대부분을 외부에서 초빙하는 구조는 지역 내에서의 콘텐츠 기획과 창작 역량 축적을 어렵게 만듦

■ 지역 정체성 확보와 자생 생태계 구축의 어려움
- 자체 기획력과 인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지역성 있는 예술 콘텐츠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형성에 한계가 발생함

"지방 공연장은 어쩔 수 없이 서울 인력에 많이 기대고 있어요. 연주자든 강사든 프로그램 기획자든 대부분 수도권에서 와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CA037)
"서울에서 내려오는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역만의 색깔이나 정체성을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은 외부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CA029)
"기획력 자체가 지역 안에서 자라기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늘 외부에 의존하다 보면 콘텐츠도 비슷비슷해지고, 지역에서 뭔가 새롭게 창작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CA036)
"지역 내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니까 결국은 인력도, 콘텐츠도, 방향성도 수도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악순환이에요." (CA039)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 필요

1) 지역 맞춤형 상주단체 및 축제 지원 체계 강화 필요

■ 단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난 중장기 전략 필요
- 통영, 대관령 등 사례처럼 축제와 단체는 단기 행사보다 지속 가능한 기획을 위한 중장기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지역 특성 반영한 자율적 기획 환경 조성
-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체의 기획력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 예술감독 중심 운영 체계의 안정성 확보
- 예술감독 주도의 기획 체계가 지속되기 위해선 행정과 재정 안정성의 병행 지원이 요구되며, 정책적 장치가 필요함

"축제든 상주단체든 1~2년 단위로 끊기는 식이면 기획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최소 5년 이상을 바라보는 구조가 돼야 장기적인 콘셉트도 만들 수 있고, 방향성도 잡히죠." (CA060)
"우리가 평창에서 하는 음악제는 지역 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자연 환경, 계절성, 지역민의 문화 인식까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CA060)
"예술감독이 중심이 되어서 기획을 끌고 가야 그 축제만의 정체성이 나와요. 그런데 행정에서 계속 개입하거나 지원이 불안정하면,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돼요." (CA060)
"감독이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려면, 운영과 재정의 안정성이 같이 뒷받침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임기응변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CA058)

2) 지역 공연장 및 예술단체에 대한 정책적 정비

■ 지역 단체 대상 행정·재정 시스템 개선 필요
-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공연장과 예술단체에는 체계적인 행정·재정 지원 구조 마련이 필요함

■ 공연장과 단체 간 역할 명확화 및 제도화 필요
-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측의 기능과 책임을 구분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함

■ 축제-상주단체 간 이중구조 해소 위한 행정 정비
- 지역 문화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제와 상주단체 간 기능 중복을 조정하는 행정 매뉴얼 마련이 시급함

"수도권은 그래도 예산이나 행정 지원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돌아가는데, 지역은 단체 하나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가야 할 때가 많아요. 그걸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나 기준이 별로 없어요." (CA025)
"공연장과 단체의 역할이 애매하게 겹치면 서로 책임 떠넘기게 되고,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아예 제도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CA058)
"통영에서도 축제는 축제대로, 상주단체는 또 별도로 움직이는데, 서로 협력한다기보단 오히려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조율이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CA058)
"상주단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예산 구조도 다르고 승인 절차도 다르고 해서 너무 복잡해요. 축제랑 별개로 운영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계속 생기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CA058)

3) 지역 관객 확대를 위한 교육·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 필요

■ 지역 관객 참여 유도를 위한 전략적 기획 필요
- 관객 기반이 한정된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연계 콘텐츠와 열린 기획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는 전략이 중요함

■ 프린지와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저변 확대 사례
- 통영의 프린지, 수성아트피아의 아카데미 등은 지역민 접근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는 운영 모델로 주목받음

■ 관객 저변 확대 위한 공공지원의 지속성 확보
- 문화 향유 계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속적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지역은 기본 관객 풀이 작기 때문에, 단순히 공연만으로는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이나 커뮤니티랑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적으로 문화에 노출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CA025)
"○○○○에서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어요. 클래식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체험을 통해 관객을 공연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CA025)
"통영은 프린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본 공연은 예술성을 추구하고, 프린지를 통해 일반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요." (CA058)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려면 결국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돼요. 해마다 예산이 달라지면 뭘 기획해도 지속성이 없고, 관객도 정착이 안 돼요." (CA025)

[그룹 12] 음반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12]은 1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24] 그룹 구성 - [그룹 12] 음반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12] 음반	그룹_연번_43	2024-12-19	CA062

2. 참석자 명단

■ [그룹12]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1인으로 구성됨

[표 2-25] 참석자 명단 - [그룹 12] 음반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12] 음반	연구협의체(n=1)	-	CA-A			
	참석자(n=1)	음반	CA062	남성	50대	29년

3. 주요 논의 사항

■ 클래식 음반 시장의 구조 변화

- 클래식 장르는 여전히 피지컬 시장 의존도가 높으며, 수입 CD 및 굿즈 소비가 일정 수요를 유지하고 있음. 반면 팝과 가요는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전환되며 유통 구조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 음반사는 롱테일 구조와 아카이브적 사명을 바탕으로 제작을 지속하며, 이는 수익 중심 시장과 다른 생태 구조를 형성함

■ 국내 아티스트 발굴과 글로벌 진출의 장벽

- 국내 클래식·크로스오버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에는 장기간의 빌드업이 필요하며, 방송 출연이나 수상 이력 같은 외부 검증이 필수적임. 인터내셔널 음반사와의 협업을 위해서는 시장성, 성장 가능성,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 다층적인 요건이 요구되어 진입 장벽이 높음

■ 유통 환경의 변화와 매장의 위축

- 2000년대 초반 전국에 8,000여 개 존재했던 음반 소매점이 현재 10~20개 수준으로 축소되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거의 사라진 상황임. 음반 소비는 공연장 연계 판매,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음반을 '굿즈'나 팬심의 상징으로 구매함

■ 팬덤 중심의 마케팅 구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 음반 판매와 소비는 연주력 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 미디어 친화도, 팬 사인회 등 팬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됨. 침묵형 예술가보다는 소통 능력을 갖춘 아티스트가 생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클래식 팬덤도 K-POP 팬덤과 유사한 구조를 보임

4.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클래식 음반 시장의 특수성과 유통 구조의 이중성

1) 클래식 피지컬 시장의 견고한 잔존

■ 클래식 음반 시장의 피지컬 중심 유통 구조 유지
- 클래식은 여전히 CD·LP 중심의 유통 구조를 보이며, 피지컬 음반이 주요 소비 채널로 작동하고 있음

■ 콘크리트 지지층 기반의 지속적 구매 수요 존재
- 고정 팬층의 소장 목적 구매와 팬심 기반의 지지 소비가 클래식 피지컬 음반 시장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임

■ 음반의 굿즈화와 감상 환경이 디지털 전환 저해
- 클래식 음반은 굿즈 성격이 강하며, 감상 환경 특성상 디지털보다 물리적 매체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음

"클래식 장르로 봤을 때는 피지컬 시장이 가지는 게 아직도 50 플러스 알파예요. 클래식이. [...] 클래식은 탄탄했던 지지층들이 아직도 건재하지. 그리고 우리 듣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도 있고 아직 LP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유입된 팬카페 시장들, 팬덤 시장들은 아직도 CD. 굿즈지. 굿즈이기도 하지만은, 굿즈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장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CA062)
"클래식 음반 수요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 음반은 일종의 굿즈일 수도 있는 거고, 음악은 계속 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거지. 디지털로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CA062)
"옛날에는 공연은 안 오고 음반만 듣는 음반 소비자들이 많았잖아요. [...] 지금은 공연만 보고 음반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 [...] 99% 일치하지. 반대예요, 지금은." (CA062)

2) 글로벌 음반사의 전략 변화와 국내시장 영향

■ 글로벌 음반사의 카탈로그 통합 및 사업 재편
- 글로벌 주요 음반사는 지속적으로 음반 카탈로그를 통합·매각하며 전략적 포지셔닝을 조정하고 있음.

■ 유니버설, 클래식·재즈 유산 확보로 아카이브 강화
- 유니버설은 다양한 클래식·재즈 레이블을 흡수해 아카이브와 유통 기반을 확장하며 장르 중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워너, 젊은 콘텐츠 중심의 시장 대응 전략 강화
- 워너는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콘텐츠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클래식 시장의 세대 전환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EMI가 이렇게 파산을 일으키게 되죠. 파산을 일으켜가지고 찢어발기게 됩니다. [...] 퍼블리시티 쪽은 소니 쪽에 다 팔고, 음악 쪽 카탈로그들과 마스터 권리들은 워너 쪽에 팔게 됩니다. [...] 그걸 산 쪽이 유니버설이다. 유니버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늘 그런 게 많아." (CA062)
"재즈도 마찬가지야. 재즈도 워너가 가지고 있던 재즈는 애틀랜틱 재즈와 논서치 쪽, 극강의 재즈를 가지고 있었죠. [...] 블루노트 카탈로그를 이제 딱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카탈로그가 더 많아지고 있고." (CA062)
"옛날에는 유니버설이 가지고 있던 재즈라고 해봤자 버브밖에 없었는데, 유니버설하고 합병이 되면서 [...] MCA 재즈, 그다음에 GRP, 임펄스, 이것들이 쭉 뭉쳐가지고 버브 뮤직 그룹으로 재편이 되고." (CA062)
"워너는 조금 다른 정책인 것 같아. 워너는 이 시대에 좀 더 할 수 있는 걸 하자. [...] 좀 더 핫하게, 좀 더 젊게, 변화 발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CA062)

3) 클래식 및 크로스오버의 시장 비중과 수익 구조

■ 클래식 장르의 낮은 매출 비중과 시장 규모의 한계
- 워너 뮤직 내 클래식 매출은 1~5% 수준으로, 크로스오버 포함 시 상승하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 내 비중은 낮음

■ 수익보다 보존 중심의 구조, 전략적 투자에 제약
- 클래식은 문화적 사명과 장기적 보존을 우선시해 단기 수익이 낮고, 마케팅·유통 전략 설정에 제약 요인이 있음

"퓨어 클래식, 그러니까 코어 클래식이라고 하면 워너가 원래 팝이랑 도메스틱 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포션이 작습니다. [...] 거기에 대니라든지 존 노라든지, 크로스오버가 쫙 붙어버리면 많게는 5%까지도 올라가고." (CA062)
"수익성은 있죠. 있지만은 남겨둬야 된다는 게 더 큰 거지.(CA062)
"클래식이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제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작기 때문에. [...]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는 않지. 그래서 전략을 짜기도 어렵고, 프로모션을 강하게 하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CA062)

나. 생태계 이슈

아티스트 진입 장벽과 팬덤 중심 시장의 양면성

1) 피지컬 중심 시장의 장르별 격차 심화

■ 클래식 중심의 피지컬 유통과 수입 CD 시장의 유지

- 클래식은 수입 CD와 피지컬 중심의 유통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며, 고정 수요층이 시장을 일정 수준 지탱하고 있음

■ 장르별 유통 방식의 차이와 시장 구조의 양극화

- 팝은 디지털 중심, 가요는 팬덤 기반 병행 구조로 전환되며, 장르별 유통 구조와 수익 모델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클래식 장르는 아직도 피지컬 시장이 50% 플러스 알파예요. 아직도 CD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CD를 사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 수입 CD는 꾸준히 나가요. 재고만 잘 관리하면 계속 돌아가." (CA062)
"팝 시장은 스트리밍 100이에요. [...] 거의 디지털로 다 넘어갔어요. 피지컬은 아예 안 나간다고 보면 되고." (CA062)
"가요 시장은 조금 달라요. 팬덤이 세기 때문에 팬심으로 CD를 사고, 또 디지털 음원도 같이 듣고 그래요. 그래서 병행 구조라고 보면 돼요." (CA062)
"장르마다 구조가 너무 다르고, 유통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 클래식은 피지컬, 팝은 디지털, 가요는 병행. 이게 지금 시장 구조의 현실이에요." (CA062)

2) 국내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의 어려움과 장기적 투자 부담

■ 해외 진출을 위한 장기적 빌드업과 시장성 검증 필요

- 해외 진출에는 최소 3~5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며, 인터내셔널 협업에는 성장 가능성과 시장성 입증이 필수임

■ 외부 인증 없는 아티스트의 진입 한계와 유통사 리스크

- 방송·수상 경력 등 외부 인증이 없는 경우 실력만으로는 계약이 어렵고, 음반사 입장에선 투자 리스크가 큼

"외국에서 인터내셔널 발매를 해도 한국에서 90% 팔리고 외국에서는 거의 안 팔려요. [...] 그래서 음반사 입장에서는 3~5년 정도는 빌드업해야 된다고 보죠. 방송도 나가고, 수상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CA062)
"이 친구가 되게 잘해요, 연주도 좋고 이미지도 좋은데 방송 하나도 안 나왔어. 수상 경력도 없어. [...] 근데 인터내셔널 음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야. 무조건 리스크." (CA062)
"실력 있는 연주자 너무 많지. 근데 실력만으로 계약하기 어려워요. 시장성이랑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 그게 없으면 음반사도 움직이지 않아요." (CA062)
"결국 인터내셔널 레이블이 계약을 하려면 최소한의 숫자, 근거가 필요해요. 방송 노출, 관객 수, 조회 수 이런 거. 그냥 잘한다는 이유만으론 안 돼요." (CA062)

3) 음악 평론의 영향력 약화와 팬덤 중심 소비구조

■ 평론 중심에서 팬덤 중심으로 전환된 소비 구조

- 클래식 음반 소비는 전문가 평보다 팬덤 영향력이 크며, 공연 관객과 음반 구매자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

■ 아티스트 중심 팬덤 결집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구매 결정은 장르보다 아티스트 충성도에 좌우되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마케팅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지금은 평론가가 음반 좋다고 해도 그게 판매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예전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팬덤이에요. 팬이 사고, 팬이 듣고, 팬이 움직이는 거예요." (CA062)
"공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음반도 사요. 예전엔 따로였는데 지금은 거의 99%가 일치해요. 공연 관객이 곧 음반 소비자예요." (CA062)
"요즘은 누가 어떤 음악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 팬들은 음악보다 사람을 좋아해서 음반을 사요." (CA062)
"말 잘하고, 팬이랑 소통 잘하는 사람이 결국 더 팔아요. [...]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연주 잘해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CA062)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아티스트 성장과 음반 유통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지원 필요

1) 검증 기반 발굴 시스템과 전문 에이전시의 연계 강화

■ 외부 검증 기반 아티스트 선호, 데모 평가의 한계

- 방송 출연이나 수상 경력 등 외부 인증이 신뢰 기반이 되며, 데모만으로는 실력과 시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예술 전문 에이전시와의 연계 필요성 대두

- 유통사는 독자적 발굴보다 협력 기반 선호가 높아, 에이전시와의 체계적 연계가 아티스트 육성에 중요함

"방송을 한두 번이라도 나간 친구들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수상 경력도 마찬가지고요. 데모만 들어서는 이 친구가 시장에 통할지 알 수가 없어요." (CA062)
"요즘은 데모 CD만 보내는 걸로는 어렵죠. [...] 유통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서 공연했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데이터를 봐야 돼요." (CA062)
"우리가 일일이 아티스트를 발굴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에이전시나 매니지먼트랑 코웍하는 경우가 많아요. [...] 그게 더 효율적이고 리스크도 적어요." (CA062)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매니지먼트가 없으면 유통 구조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벽이 높죠." (CA062)

2)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을 위한 아티스트 교육 지원

■ 연주력 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평가 요소로 부상

- 음반사는 아티스트의 실력뿐 아니라 팬과의 소통 능력, 미디어 대응력 등을 핵심 역량으로 중요하게 평가함

■ 팬 접점 중심의 마케팅 구조와 교육 지원 필요

- 팬 사인회 등 접점 활동이 마케팅 성패를 좌우하며, 이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소통 역량 교육이 요구됨

"실력은 기본이고, 그다음이 소통이에요. [...] 요즘은 팬이랑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 미디어에서 어떻게 비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CA062)
"아무리 연주 잘해도 말 한 마디 못 하면 팬들이 멀어져요. 팬 사인회, 간단한 토크, SNS 이런 데서 연결이 돼야 해요." (CA062)
"그냥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 본인이 뭘 보여줄지 기획할 수 있어야죠. 요즘은 그것도 교육이 필요한 시대예요." (CA062)
"예전에는 무대에서 연주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걸 어떻게 보여줄지도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도 실력의 일부예요." (CA062)

3) 롱테일 구조를 고려한 지속적 음반 제작 지원.

■ 클래식 음반의 아카이브적 성격과 제작 사명감

- 클래식 음반은 기록과 보존을 위한 제작이 많으며, 제작자는 연주를 남긴다는 사명감을 중심으로 작업함

■ 롱테일 소비 구조에 맞춘 중장기 지원 필요

- 클래식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소비를 지향하므로, 이를 고려한 지속적이고 유연한 제작 지원이 필요함

"클래식 쪽은 나도 왜 음반 제작을 하느냐. 클래식은 롱테일이에요. [...] 그다음에 음반사의 사명은 이 친구의 연주나 이 친구의 음악을 남겨두는 사람. 아카이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CA062)
"그게 모이고 모이고 모여가지고 훗날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누군가가... 그 사명밖에 없어요. 그거는 음반사에서 클래식을 담당하는 제작자라면 무조건 가져야 되는 사명감이에요." (CA062)
"클래식 음반은 당장 히트를 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 천천히, 길게 가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CA062)

[그룹 13] 축제

1. 그룹 구성

■ 음악 분야 [그룹13]은 3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표 2-26] 그룹 구성 - [그룹 13] 축제

그룹	연번	날짜	참석자
[그룹 13] 음반	그룹_연번_42	2024-12-17	CA058
	그룹_연번_45	2024-12-20	CA056
	그룹_연번_48	2024-12-27	CA060, CA061

2. 참석자 명단

■ [그룹13]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1인, 참석자 4인으로 구성됨

[표 2-27] 참석자 명단 - [그룹 13] 축제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12] 지역	연구협의체(n=1)	-	CA-A			
	참석자(n=4)	축제	CA056	여성	50대	28년
		축제	CA058	여성	40대	21년
		축제	CA060	남성	50대	-
		축제	CA061	여성	50대	15년

3. 주요 논의 사항

■ 축제 정체성과 예술적 방향 전환

- 동시대 음악제를 지향하며 장르 확장과 테마 중심 기획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함

■ 극장 중심 구조와 접근성 한계

- 메인 공연장과 프린지 간 공간적 단절로 축제 체감도와 접근성이 저하됨

■ 지역 확산 전략과 관객 다양화

- 아웃리치 공연을 통해 지역 관객 접점을 확대하고 새로운 관람층을 유도함

■ 공공성과 예술성의 균형 문제

-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와 예술성을 조화롭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국제 음악제의 정체성과 방향성 재정립

1) 현대음악제에서 동시대 예술제의 정체성으로 확장됨

■ 현대음악 중심에서 장르 확장형 예술제로 변화

- 통영국제음악제는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음악'을 수용하는 예술제로 정체성을 확대하고 있음

■ 다양한 장르 협업과 매체 활용으로 예술 표현의 폭 확대

- 타 장르와의 협업, 멀티미디어 결합 등 동시대 예술 경향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축제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전까지는 계속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음악제였는데, 현대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 그걸 굳이 우리가 좁혀놓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식 소개에서도 '현대음악제'라는 말은 다 빠졌어요." (CA058)
"감독님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추구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재즈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다이버시티, 버라이어티 같은 것들이에요." (CA058)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게 다른 페스티벌들에서 잘 안 다루는 장르나 타 장르와의 협업이었어요. 멀티미디어나 무용 같은 것도 음악을 중심에 두고 함께 가는 거죠." (CA058)
"감독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저도 걱정했어요. 너무 컨템포러리 쪽으로만 가면 어떡하나. 근데 첫 해에는 오히려 클래식이 훨씬 많았고, 다양한 비율로 조절하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CA058)

2) 축제 테마 중심 프로그래밍 지향

■ 주제 중심의 기획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제 운영

- 대관령음악제는 매년 자연, 존엄성, 문화 교류 등 사회적 의미를 담은 주제를 정해 프로그램을 기획함

■ 예술적 완성도를 우선시하는 비상업적 프로그래밍 철학 유지

- 상업적 흥행보다는 작품성과 철학 중심의 기획을 지향하며 축제의 예술적 정체성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음

"왜 페스티벌이 있어야 되는지, 있음으로써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를 계속 질문했어요. [...] 지난 여름에는 베토벤의 이상을 추구한 작곡가들로 구성했죠." (CA060)
"2022년엔 자연을 주제로 했어요. 평창이라는 지역성과도 맞고, 전 지구적 환경 문제와도 연결되는 테마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죠." (CA060)
"2024년에는 인터하모니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 자기 문화가 아닌 타문화에서 받은 영감으로 작곡된 작품들만 선곡했어요." (CA060)
"우리는 프라이빗한 상업 축제가 아니라 공공 지원을 받는 축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에 환류되는 예술적 콘텐츠를 해야 한다고 봐요." (CA060)
"공연 티켓 수익이나 스타 마케팅보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음악제의 철학이에요." (CA061)

3) 공연장 보유에 따른 기획력 및 운영 자율성 확대

■ 전통 극장 확보로 연중 운영 가능한 기획 구조 마련
- 특정 기간에 제한되지 않고 자율적인 공연 편성이 가능해지며 기획 유연성이 확대됨

■ 콘텐츠 중심 축제에서 공간 기반 운영주체로의 전환
- 자체 공연장이 생기며 외부 협상력과 조직적 자립성이 강화되어 운영 구조가 진화함

"2014년에 극장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프로그래밍에서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 예전에는 시간이나 공간 제약이 많았거든요." (CA058)
"지금은 극장이 있다 보니까 연중 내내 기획공연을 운영할 수 있어요. 특정 시즌에만 몰려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CA058)
"예전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외부 극장 빌리는 데만도 많은 협상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꾸려갈 수 있죠." (CA058)
"지금 통영국제음악제가 콘텐츠 중심 예술제에서 공간 중심의 운영 주체로 성격이 달라진 것도 이 극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CA058)

나. 생태계 이슈

축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제약과 내부 과제

1) 프린지 프로그램과 본 축제 간의 단절 문제

■ 프린지 프로그램과 메인 공연 간 공간적 단절 발생

- 프린지가 중심 공연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열려 관객의 자연스러운 이동과 참여가 어려움

■ 체감도 저하와 축제 확장성의 한계로 이어지는 구조

- 중심지 외곽에서의 운영으로 축제의 개방성과 체감도가 낮아지고 확산 효과에도 제약이 있음

"프린지를 ○○○ 말고 시내 쪽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 축제의 중심과 떨어져 있어서 [...] 그쪽에선 축제 느낌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CA058)
"프린지가 오히려 결계처럼 작용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관광객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렵고, 무대 분위기도 다르니까요." (CA058)
"프린지 프로그램은 오히려 음악제의 열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단절된 구조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아요." (CA058)

2) 공연 장소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와 접근성 문제

■ 지역별 공연 인프라의 질적 격차로 운영 제약 발생

- 문화재나 회관 등 장소에 따라 음향·시설 환경이 달라 공연 수준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 공연 품질과 지역 확산 사이 균형 확보의 현실적 한계

- 지역 확산을 목표로 하지만 고품질 공연 제공과의 균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지님

"강원도 구석구석에 아티스트를 보내 아웃리치를 하긴 하는데, 장소가 문화재일 때도 있고, 그냥 지역 회관일 때도 있어요. [...] 공연 내용에 따라 제약이 있어요." (CA061)
"어떤 장소는 음향이나 무대 시설이 공연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선 연주 퀄리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CA061)
"아웃리치를 통해 지역 확산은 되지만, 항상 공연의 완성도와 지역 접근성 사이에서 고민이 생겨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CA061)

3) 음악제에 대한 지역 정치·사회적 시선

■ 윤이상 중심 정체성에서 확장 시도, 일부는 이탈로 인식

- 음악제의 변화가 일부 지역 인사들에게는 기존 정신의 훼손이나 배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지역 내부 갈등이 축제의 공공성 유지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 정치·정서적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축제의 공공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함

"그 1인은 마치 우리가 윤이상 선생님을 버리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다, 이제 통영국제음악제는 윤이상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CA058)
"음악제를 현대음악제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지금의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 그게 지역에서 해석이 엇갈리는 지점이에요." (CA058)
"윤이상이라는 이름을 계속 걸고 가야 하느냐에 대한 내부 논의도 있었고, 저희는 더 넓은 정체성으로 가자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CA058)
"이게 정치적 입장 차이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해요. 지역에서는 그분의 이미지가 아직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CA058)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축제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행 전략

1) 프린지 활성화를 위한 축제 체감도 제고

■ 프린지 프로그램을 메인 축제 동선 내에 통합할 필요
- 메인 공연과 분리되지 않도록 프린지를 축제 동선 내 자연스럽게 배치해야 함

■ 도심 분산 공연을 통한 체감도 향상과 파급력 확대
- 관광지나 도심 연계 운영으로 지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

"프린지를 좀 더 도심 안쪽에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동선 안에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중심 축제랑 연결되어야 하는데..." (CA058)
"프린지가 지금 열리는 장소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제가 자기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CA058)
"사실 미륵도로 들어와야 비로소 음악제를 만났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냥 일상 공간이니까 축제 분위기를 못 느껴요." (CA058)
"프린지를 중심 시가지나 관광지랑 엮어서 분산형으로 구성하면 훨씬 체감도도 높아지고, 관객 유입도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고 봐요." (CA058)

2) 지역 확산형 아웃리치 공연의 전략적 운용 필요

■ 아웃리치 공연의 유료 전환을 통한 운영 방식 실험 중
- 무료에서 저가 유료 공연으로 전환하며 관객 반응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음

■ 예산과 콘텐츠 품질 간의 전략적 균형 조율 필요
- 축제의 공공성과 예술 수준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한 세심한 조율이 요구됨

"원래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했었는데, 노쇼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했어요. 도민 할인이 들어가서 가격은 낮게 책정했어요." (CA061)
"유료로 바꿔도 관객 수가 줄진 않았어요. 예매율도 거의 비슷했고, 오히려 티켓이 있다 보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었고요." (CA061)
"문화재 장소나 지역 회관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환경이 일정치 않아요. 그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장비 지원이 필요해요." (CA061)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고퀄리티 공연을 지역에 보낼 때 늘 고민이 생겨요. 예술성과 접근성,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늘 균형이 필요해요." (CA061)

3) 상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

■ 축제는 상업성과 공공성의 균형 속에 기획되어야 함
- 수익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통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공공 예산을 활용한 사회 환류 중심 콘텐츠 구성
- ○○○○는 예산 기반으로 예술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있음

"프라이빗 스폰서가 있는 축제도 필요하고, 그런 상업적인 축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비나 국고를 받는 경우는 다르죠. 사회에 보탬이 돼야 해요." (CA060)
"우리가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축복이니까, 그걸 사회에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콘텐츠 구성에도 영향을 줘요." (CA060)
"상업적으로 가는 방향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우리 음악제는 그보다는 예술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CA060)
"예술이라는 게 그냥 소비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고 남겨야 할 거라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죠.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있어요." (CA060)


한국문화예술위원회